



## 우리 겨레의 숭고한 역사, 새로운 경북시대로 잇다!

### 굳은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친 자긍심 품고, 미래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

경상북도는 지난 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역사 경북, 다시 쓰는 미래 경북'을 주제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배한철 도의회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도민 700명이 참석했다.

경북 문경 출신의 3.1운동 독립유공자로 확인된 고(故) 백억출 선생님의 외손녀 정정숙 씨(75)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로 도민과 공무원 10명은 도지사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만세삼창으로 105년 전 그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렸다.

한편, 3.1절을 맞아 포항,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영양, 영덕, 칠곡, 예천, 울진 등 도내 곳곳에서 애국지사 추념식, 만세 재현행사 등 크고 작은 19개 행사가 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5천 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이 미래 5천 년의 역사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선봉에 섰다."라며, "‘한 마을’이 독립운동을 하고, 근면·자조·협동을 통해 ‘새마을’ 일궈낸 것처럼 이제는 ‘온 마을’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제5대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충북도, 어쩌다 못난이 김치 참여업체 간담회 개최

### 지금까지 추진 성과 공유하고, 판매 확대방안 논의

충청북도는 29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어쩌다 못난이 김치' 참여업체(청주 산수야, 충주 동심, 보은 이깁, 음성 보성일억조코리아, 영동 선미농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5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재까지 못난이 김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업체별 의견수렴과 함께 판매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북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2022년 가을 배추가격 폭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그 취지와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충청북도 김치브랜드로 육성하여 품질 좋은 배추와 100%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연중 생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328톤 11.7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지난 가을에는 상품으로 판매가 어려운 못난이 배추 360여톤을 참여업체와 지역업체가 농가로부터 매입하여 김치로 만들거나 알배추로 가공해 판매했다.

고정화/기자

특히, (주)보성일억조코리아에서는 못난이 김치의 특성상 구매가 한시적이고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꾸준한 공급을 위해 오는 3월중 캔김치를 출시할 예정이다.

캔김치는 보관성이 높아 배추가격이 폭락할 때 대량으로 생산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못난이 김치 취지에 적합하다.

못난이 김치는 오프라인에서는 농협 청주물류센터, 직거래장터, 중소기업 판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온라인으로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방송커머스, 11번가, 청풍명월장터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영환 도지사는 "못난이 김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준 참여업체에 감사하다"며, "못난이 김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수입산 김치로부터 우리 식탁을 지키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혁신·비전 실행 1주년 경과 보고회」 개최

· '23년 2월 「혁신·비전 보고회」 이후 1년간의 추진성과 공유  
· 내외부 전문가들과 향후 '24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임직원,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비전 실행 1주년 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혁신·비전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사업혁신, 경영전략, 인권경영, 조직인사 4대 부문 혁신안에 대한 후속조치인 91개 세부이행과제의 1년간 추진 성과를 공

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혁신과제 중 2023년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도입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광주 도라금근공원 환경생태복원사업 ▲GH 기회수도 파트너스 구성 ▲GH 인권센터 개소가 있다.

김범상/기자

김세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1년여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2024년도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충남도, 제23회 유관순상 수상자에 유연경 씨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인 유관순상 수상자에 유연경 사단법인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유관순상위원회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23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유연경 사단법인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을, 유관순훈장 수상자로 돌마고 김경은 학생 등 20명을 선정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선발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와 서울 이화여고, 동아일보가 2001년 공동 제정했다.

위원회는 유관순상의 전국적인 위상과 임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상금 규모를 유관순상 기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유관순훈장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으며, 유관순훈장 수상자 수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유관순상을 받은 유 전 이사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33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재직 당시 여성의 관리직 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전국 최초 여성동장을 맡는 등 공직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퇴직 이후에는 자원봉사단인 이웃사랑봉사회를 조직해 회장직을 직접 수행하고 강원대병원과 육군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체중자녀를 대상으로 병원 안내 및 식사 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며 이웃 돌봄 정신을 오롯이 실천해 왔다.

또 윤희순기념사업회에서 이사로 꾸준히 활동하다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이사장직을 맡아 사무국 상설화 등 사업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윤희순 의사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으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해 '안사람 의병'을 제작해 노래로 의병 운동 분위기를 고취했다.

이후 여성 의병을 조직해 무·화약 제조 및 자금 모집 등 직접 의병 활동에 참여하고 노학당을 설립해 항일인재 양성 등 40년간 독립운동에 헌신해 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런 정신을 본받아 윤희순 의사 추모문화제, 콘서트, 청소년 교육·강연 등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심사에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유관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관순훈장 수상은 18살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상으로, 전국 고교 1학년 여학생과 만 16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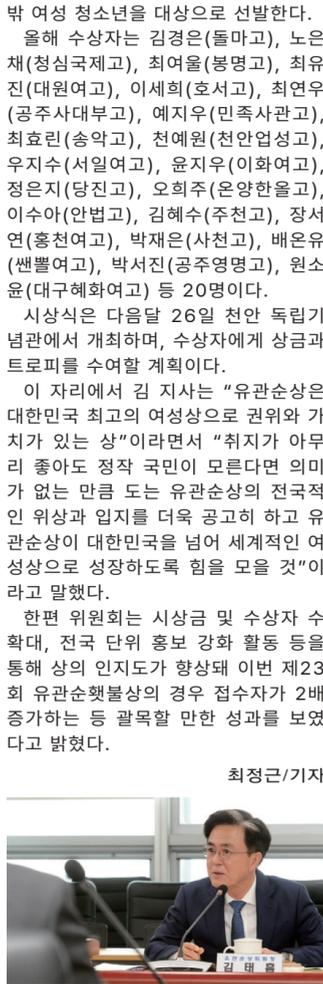
올해 수상자는 김경은(돌마고), 노은채(청심국제고), 최여울(봉명고), 최유진(대원고), 이세희(호서고), 최연우(공주사대부고), 예지우(민족사관고), 최효린(송악고), 전예원(천안업성고), 우지수(서일여고), 윤지우(이화여고), 정은지(당진고), 오희주(온양한울고), 이수아(안평고), 김혜수(추천고), 장서연(홍천여고), 박재은(사천고), 배은유(쌍백여고), 박서진(공주영명고), 원소윤(대구해화여고) 등 20명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26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상으로 권위와 가치가 있는 상"이라며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정작 국민이 모른다면 의미가 없는 만큼 도는 유관순상의 전국적인 위상과 임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관순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여성상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상금 및 수상자 수 확대, 전국 단위 홍보 강화 활동 등을 통해 상의 인지도가 향상돼 이번 제23회 유관순상수상자의 경우 접수자가 2배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한 비상진료체계 살펴

### 29일 순천 성가롤로병원 의료진 격려·애로사항 청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의대 증원 관련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순천 성가롤로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영록 지사는 "성가롤로병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도민을 위해 헌신했던 의료기관이었다"며 "이번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으로부터 의료진 이말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듣고 "현재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병원 측에서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형병원의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성가롤로병원과 같은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증가도 예상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져 자 정부는 23일 보건료재난 위기경

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전남도는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 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3개소 평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전남 소방본부 및 전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보건소의 진료 시간 확대, 필요

시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 서울시와 같이 정원의 가치를 빛낼 정원사 여러분을 모십니다

### 서울시, 월드컵·보라매공원 내 시민 참여형 정원 조성...전문가와 함께 정원 가꾸기 참여자 모집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월드컵공원과 보라매공원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월드컵 공원에는 '팜가든(Farm Garden)'을 조성해 작물을 재배하고, 보라매 공원에는 5가지 꽃으로 가득한 '5색 향기정원'을 조성해 수확물을 활용한 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2개 공원 내 만들어진 정원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와 원예사, 도시농업전문가 등 전문가를 배치해 참여자가 정원 조성부터 관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팜가든(Farm Garden)'에서는 감자·양파·배추 등의 작물 재배 이론교육과 실제 재배가 이뤄지며 가족별 정원 안내판 만들기부터 친환경 멀칭체, 천연비료 만들기 등을 비롯해 시기별 수확되는 작물로 요리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월 1회 집합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고, 월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 단위 2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선발된 20팀은 3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색 향기정원'은 보라매공원을 찾는 시민이 다섯 색깔 꽃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등 유아 관련 6개 기



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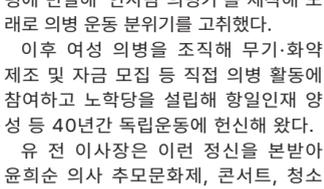
유아 대상 프로그램인 '꼬마 정원사'는 상반기(4~7월)와 하반기(8~11월)로 나뉘어 진행되며, 흙공으로 만든 씨앗폭탄 던지기부터 꽃잎 그림그리기까지 월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시니어 허브 가드닝'은 허브 관리부터 허브를 이용한 음료수 만들기,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 월별 다양한 체험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팜가든', '5색 향기정원' 관련 문의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은 물론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보다 가깝게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정원에서 가드닝 체험을 통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경영, 직무수행능력, 조직관리,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 실시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개최해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재혁 후보자에 대해 지난 3년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있게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도내 지역균형발전 ▲ 환경 및 경력 사항 ▲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 위수탁사업 위주의 경영개선 대책 ▲ 경북도/출자출연 기관 간의 협력 ▲ 미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현재 경상북도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저출생 극복과 관련하여 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2단계 개발사업이 저조한 점과 레이크빌리지, 한옥마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혁 후보자는 최종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정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웠던 점은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22개 시군과의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면서 "연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일부 사업들의 추진상황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사장으로 3년간의 기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물으며 "이 후보자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본회의 보고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대구 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 차대식 의장, "제284회 임시회 기간 2024년도 업무보고/조례안 심사에 노고 많은 동료 의원, 업무보고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려"

대구 북구의회가 지난 12일 북부녹색어머니회 소속 회원 자녀 14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북구의회 견학에 이어 북구의회 교육영상 시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3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전반의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했다.

이어진 본회의 3분 자유발언에서는 공부와 성적 위주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진솔한 심경을 토로했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환경 유지를 위한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안', '전동킥보드 사용 시 지켜야 할 규칙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수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가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다"며 "오늘 모의의회가 민주시민의 역할을 키우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반도체산업 지원근거 마련해 반도체 허브도시로 도약 박차"

## 박종필 시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지역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거점인 센소리움 연구소 방문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지난 2월 27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센소리움 연구소'를 방문해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대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에 발맞춰 박종필 의원은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종필 의원은 "충북은 이미 2022년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 대전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대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

해서는 그 근거가 될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박 의원은 지역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센소리움 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을 청취하고 클린룸, 공정장비 등 연구시설을 둘러 보았다.

대구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한 지역 산업구조 상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바로 센소리움 연구소와 D-FAB(대구형 반도체 팹)이다.

'센소리움 연구소'는 2022년 개소한 지능형 첨단센서 거점 연구기관으로, 센서 공정장비를 구축하고 센서 상용화, 실증연구 및 요소기술 개발 등 센서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또한 'D-FAB(대구형 반도체 팹)'은 2025년 건립 예정인 8인치 기반의 기업 전용 센서반도체 생산시설로, 반도체센서 설계·제작·실증 및 양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박종필 의원은 조례제 연구소

장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은 대구시의 중요한 먹거리산업이다. 반도체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확대, 기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 반도체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함께 자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우수 인력 유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반도체산업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집적화단지 조성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은 제307회 임시회(3. 5. ~ 3. 15.)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구시의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 현장 의정활동

## 풍천면 일원 주요 사업현장 방문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 246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인 2월 29일 풍천면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 공동관리사무소 ▲ 안동장사문화공원 ▲ 풍천하수종말처리장 ▲ 맑은누리파크 4개소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지 관계자로부터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장사문화공원을 찾아 화장시설 이용에 있어 관내 이용자(안동·예천)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했고, 풍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추진 중인 환경체험관 "환경그린스쿨"을 관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 방문한 공동관리사무소에서는 지하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시설 개선과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안동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 이천시 송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이 29일 이천 송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명서 의원은 송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캐노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침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날 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명서 의원은 "송정초교의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캐노피 설치를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배영숙 부산시의원, 2024 부산인구미래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 양육불안에 있어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 활성화가 필요 건강한 가임여성 지원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조례'제정 검토 중 저출산 인식 개선에 큰 영향 미치는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 강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지난 달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부산인구미래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초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황에 대하여 정책, 경제, 교육 3가지 분야에서 살펴보고 부산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부산일보사,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BNK금융그룹,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 미래-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정책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초저출산은 결국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직결된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령불안·주거불안·양육불안 등 '불안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배 의원은 양육불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도 부모 부담 줄지 않는 사회적 저출산 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정산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2020년 기준 자

경부암이 전국 평균 11.4%의 수치인데 부산은 14.3%로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저는 부산 거주 여성 청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올해 부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부산시 거주하는 임신·출산 준비 부부와

부모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 정책 발굴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80.9%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언론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부산시의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에 따른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 목적으로 자공경부암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로서 3월 부산시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김희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엔트 부:내선 (118)
	스 포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천시 민선8기,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전면 개편



이천시는 “시민 생명의 젖줄인 수도 시설을 이천의 미래 100년을 반영하고 인구 30만 이상에 대응하는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하여 계획적인 도시건설의 밑거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개편은 물 확충분야에서 2040년을 기준 사회적 유입구 증가에 따른 부족량을 미리 확보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시 ▲ 미반영된 도시개발사업 송정1지구의 14개소 ▲ 1,000세대 미만 제외된 신둔코아루 외 15개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과 시설의 확충·개선분야에서는 ▲ 취·정수하는 시설의 신·증설 ▲ 수도관로의 복선화 ▲ 물공급 비상체계구축 ▲ 배수지의 신·증설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1994년 통수되어 30년 이상 이천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사용되어 온 수도시설을 이제는 새로 바꿔야 할 시기가 도래 됐다. 기존의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정수시설·수도관·급수관 등의 노후화는 각종 누수 및 복구공사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구공사를 위한 예산투자와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자연재해가 적고 경강선, KTX·GTX도입 등 교통의 요충지로 인구가 지속적인

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가 점진적인 확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한 도시계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는 꼭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다.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계획을 수립,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선8기에서는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추가 도시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규제 등 이천시만의 특성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역세권개발 사업과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발맞추어 증가하는 상수도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등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이천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전면개편의 주요사업을 면밀히 살펴봤다.

▲ 첫번째, 이천 취·정수장 증설사업 및 취수원 추가확보 타당성 조사 증가된 계획인구에 따른 용수 수요량에 맞춰 취·정수장 용량을 추가(Q=40,000m³/일) 확보하고, 환경부 방침에 의거 4대강 보 운영계획에 따라 하천 수위저하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 안정적인 취수를 위한 시설개선 및 이천정수장 공급 능력 추가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국비 16억원 확보)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 외에도 노후관로 정비 및 정수장 기술진단 등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두번째, 수도관로 복선화 추진

사업 `94년 이후 매설된 노후 수도관로의 파손 및 잦은 누수사고(최근 5년간 37건)로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이천취수장(여주 단현리)에서 이천정수장(이천 산촌리)까지 약25km(이천 14km, 여주 11km/D=1,100mm)구간의 수도관로를 복선화계획을 수립하여(용역비 45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 세번째, 상수도 긴급비상망 구축사업

지방상수도의 공급망의 사고 및 가압장 정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이천시 상수도 긴급비상망 구축사업의(광역~지방 연결, 도비 7억원 확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송수관로 L=3.7km, D=1,000mm)

▲ 네번째, 백사, 마장·호법 배수지 신설사업(2개소)

사회적 인구증가 및 각종 사업의 증가에 따른 고질적인 출수불량 민원발생지인 백사, 호법·마장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하여 물공급의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현재 위치 선정 등 기초설계 용역이 추진중이다.

김경희 이천 시장은 “이천시는 2024년을 시작으로 수돗물 공급중장관리계획 추진에 맞춰 수도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물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천시 미래에 필요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스페인 최대 컨벤션 기업 NEBEXT와 MICE 촉진 협약

## 이상일 시장, “용인에 필요한 컨벤션 시설 등 MICE 산업 육성에 많은 도움 얻기를 기대”

용인특례시는 28일(현지시각) 스페인 최대 규모 컨벤션 전문기업 NEBEXT와 MICE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3대 첨단IT산업 박람회인 ‘MWC 2024’ 참관을 위해 바르셀로나를 찾은 이 시장은 스페인 방문 첫날 마드리드에서 열린 호텔·레스토랑 박람회 HIP를 안내했던 NEBEXT의 실비아 아빌레스 CMO(최고마케팅 경영자) 등과 바르셀로나 본사에서 만나 ‘용인특례시와 NEBEXT 간의 MICE 촉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에 조성 중인 플랫폼시티(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외에도 GTX A노선 구성역 주변에 MICE 산업과 관련한 컨벤션 시설, 호텔 등을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협약서에는 용인의 MICE 산업 촉진을 위해 용인특례시와 NEBEXT가 협력하고, NEBEXT가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마드리드, 말라가, 세비아, 발레리아 등 스페인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할 각종 박람회에 용인의 기업이나 협회, 기관이 참여하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시장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용인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컨벤션 시설과 호텔인 만큼 스페인에서 가장 큰 B2B(기업 간 거래) 이벤트를 기획하는 NEBEXT와의 협약은 향후 시의 MICE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흥구 플랫폼시티에 주거·문화 시설 외에도 첨단산업 R&D

시설, 컨벤션 시설, 호텔, 쇼핑몰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데, MICE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NEBEXT가 많은 지혜를 주기 바란다”며 “컨벤션 시설 등 MICE 산업 구축은 용인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NEBEXT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에 용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실비아 아빌레스 CMO는 “용인특례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용인에 발전할수록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컨벤션 개최 필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오 늘 협약을 계기로 용인에서 MICE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방재단과 NEBEXT의 실비아 아빌레스 CMO, 주셉 조나스 코르메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NEBEXT는 올해 이 시장이 참관했던 HIP(Horeca Professional Expo, 2.19~2.21, 마드리드)를 기획한 데 이어 건설과 관련한 REBUILD Expo(3.19~3.21, 마드리드)와 남유럽 최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엑스포인 Advanced Fxxtories(4.9~4.11, 바르셀로나), 식품 산업 박람회 Food4 Future - Expo FoodTech(4.16~4.18, 빌바오), 물류 분야 박람회 Pick&Pack for Food Industry(4.16~4.18, 빌바오) 등을 개최한다.

이날 이 시장 일행은 바르셀로나 시 산하 경제개발기관인 액티바(Activa)와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액티바는 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 도시 리모델링 등을 담당하는 바르셀로나시 소속 산하 경제개발 기관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노후된 방직 공장 등이 밀집된 포블레노우 지역을 주거와 문화, 산업, 교육이 복합된 곳으로 바꾸는 데 중심역할을 한 기관이다.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는 270여 명의 IT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으로, 바르셀로나를 스마트 도시로 바꾸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산하 공기업에 정보통신(IT)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전략 수립과 시행을 통해 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IMI를 중심으로 유럽 곳곳의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정도로 스마트시티화를 선도하고 있다.

28일 오후(현지시각)까지 계획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 시장 일행은 29일 오후 귀국한다.

김범상/기자



# 여주시, 정부 데이터 평가 모두 ‘우수’

##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 획득

여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 평가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데이터 평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 주목을 끌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에 대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등 행정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두 평가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며 전국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 보통, 미흡 3분류의 등급을 부여한다.

여주시는 공공데이터 평가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대해서는 올해 최초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여주시와 동급인 ‘시’ 단위에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이 모두 우수한 지자체는 전국에 9개뿐으로 이번 거둔 성과가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여주시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 평

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여주시 행정이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방문교육 '공간 런(RUN/LEARN)' 운영

## 19~29일 교육신청 부서 방문해 공간정보통합플랫폼 2D·3D 시스템 개하고, 활용 사례 설명

수원시가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원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방문 교육-공간 런(RUN/LEARN)’을 열었다.

수원시 공간정보팀장 등 직원들이 생태원원과 시작으로 교육을 신청한 부서를 찾아가 공간정보통합플랫폼 2D·3D 시스템을 소개하고,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공간정보자료 분석·응용·시뮬레이션, 정책 의사결정 기획활용 실습, 공간정보 보안교육도 했다.

수원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사용

자가 원하는 지역의 토지 정보를 조회하고, 공간정보를 통합관리·시각화·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해 주는 통합시스템이다.

3차원 공간정보는 평면 사진(2차원)을 넘어 현실과 흡사한 고해상도 입체 공간을 구현하는 정보기술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일조권·조망권 분석, 시설물 입지 조건·도시경관 분석을 할 수 있다. 또 자연환경을 분석해 침수와 같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원시는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월 2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신규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월 통합플랫폼 접속은 6893건이었고, 이용자는 업무 담당 주무관(86%)이 대부분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재구축했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해 공직자의 공간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 광주시·고흥군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28일 자매결연도시 전라남도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결연도시 상호 발전을 응원하며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년 연속 고흥군에 기부금을 기탁해왔다. 이에 공영민 고흥군수도 광주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상호 간 유대를 강화했다. 광주시와 고흥군은 지난 201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교류로 친분을 다져왔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고흥군과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상호 도시에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현재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담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모집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와 모금 지자체를 대상으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안산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내 설치 공동 대응해야"

## 경기도시장군수협 제5차 정기회의서 안건 채택... 30개 시군 동의 이끌어

안산시는 지난 28일 오산시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의 경기도 내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 시군에 이민청 설치 시 이민정책의 집적화·표준화를 통한 전국 전파는 물론, 외국인 정책의 표준 모델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는 대한민국 외국인 전체의 33%에 달하는 75만 1천50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특화 전문기관 등 다양한 외국인 지원기관이 포진해 있다.

안산시는 법무부에서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이민청 설치를 발표한 이후, 전국의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치 의사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내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안산시의 제안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공식 지정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유능한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청 설치를 함께 촉구하고, 경기도 내 유치가 필요하다는 공동 건의문을 이날 정식으로 채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안산의 길, 대한민국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를 본격화했다. 특히 법무부에 유치 제안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각종 주한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내·외국인 간의 공감대를 쌓으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민청 안산시장은 "경기도 내에 이민청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민청 유치라는 큰 도전에, 안산시민, 각국의 대사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정부/기자

# 고양특례시, 저소득층에 친환경보일러 1대당 60만원 교체 지원

## 환경표지인증받은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선착순 지원

고양특례시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으로 2024년에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70가구에 1대당 6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의 다자녀(막내자녀 만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도 올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일반가정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지원하는 친환경 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받은 콘덴싱 가스보일러다. 신청 방법은 고양시청 누리집의 '정보공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일러'를 검색하여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에코스퀘어) 제출 또는 고양특례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대기환경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지원 대상** 저소득층·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권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다자녀 가구 등  
- 2자녀 이상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 내용** 친환경 보일러(환경표지 인증 받은 콘덴싱 가스 보일러)

**지원 금액** 60만원

**신청 기간** 보일러 설치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보일러 설치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지자체 방문신청 > 설치 증명자료 제출 및 확인 > 보조금 지급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



#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 운영



화성시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을 운영한다.

체험관에서는 '건강한 세 살 식습관, 건강한 여든 식습관까지'를 주제로 인스턴트·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성인이 된 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통한 식품건강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3~6월에는 수항미, 7~10월에는 송산포도 등 로컬푸드를 활용한 연령별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영·유아들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1~2세 어린이 대상으로는 매일 오전 10시 '코리요의 맛있는 놀이터' 프로그램에서 식재료 활용 오감놀이와

손씻기 예방교육 등을 운영한다.

3~5세 어린이 대상으로는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로컬푸드 골짜기, 건강 식사 뽀뽀'를 운영해 수항미와 송산포도를 이용한 다양한 간식 만들기 및 시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급식소는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은 "어린이들이 체험관을 찾아 올바른 식습관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식습관 개선과 편식 예방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교육 연계 활동지를 제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 하남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융자금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

## 중소기업 대상 최대 2억원 융자, 이자 2% 지원

하남시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이율 2% 융자금 지원사업과 대출금의 이자 중 2%를 지원하는 대출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금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연 2%의 금리(2년 거치 2년 균분상환)로 지원하며, 이자차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금의 이자 중 2%(1년 거치 4년 균분상환)를 지원한다.

1차 접수는 오는 3월 8일까지로 융자금 지원사업은 4개 업체 내외,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1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한다.

2차 접수는 6월 중, 3차 접수는 9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작년과 달리 업종 제한을 해제해 신청 폭을 확대했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받고 있는 업체(세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차이 있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돕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790-5503)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 '공공데이터 행정' 두각...행안부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최대호 시장 "다년간 노력...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발굴 최선을 다할 것"

안양시가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의 각종 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최고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행안부 주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도 2021-2022-2023년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는 행안부가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을 16개 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시는 226개 기초지자체 동일 평가 그룹에서 상위 15개 기관에 선정되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발굴 및 개방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안양시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공데이터를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오픈API)' 형태로도 제공을 확대했다.

시는 오픈API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전환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안양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민들이 직접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체감도 높은 정책 또는 공익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공·빅데이터 활용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는 과학 행정을 추진하고자 다년간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가 지난 29일 올해 10.2% 가량의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2.1%, 물가상승률 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재석의원 99명 가운데 단 3명의 의원을 제외한 96명 찬성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안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따른 것으로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 가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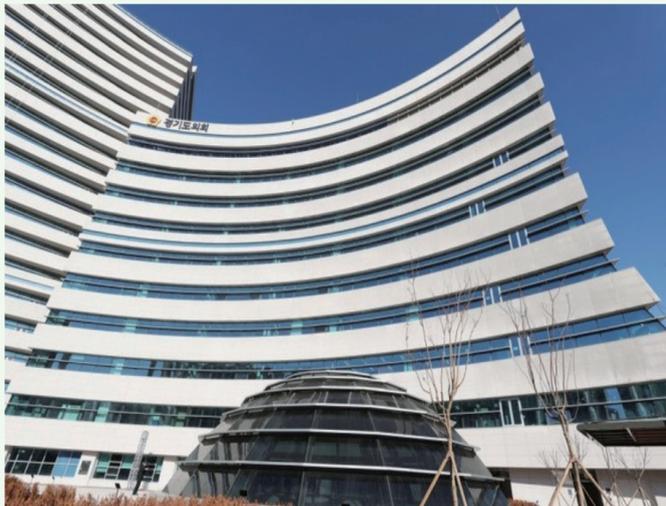
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의원 전체 의정비 인상은 1인당 전년도 6727만원에 비해 의정지원비 등 684만원(10.2%)이 인상돼 7411만원이 됐다. 전국 시·도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증액한 684만원 중에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의 경우 상한액 50만원(시군구의 경우 4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의정활동비를 흡수 급여 개념으로 사용해도 제지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제시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임광현 회장,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발전과 자치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는 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반기 진흥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체계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통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중반기 진흥 전략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됐으며, 지난 12월에 착수하여 2월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윤재영, 윤성근, 이오수, 김시용 의원과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황록주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는 본 연구용역의 한국인문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정책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발표했다.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실태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박물관·미술관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하며 맞춤형 지원체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 교수는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분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특화된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임광현 회장은 "오늘날 박물관과 미술관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능 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로 확대됨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품격을 높여 도민이 사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 평택시민의 염원이 담긴 평택항 발전위해 물류항만 전문가 대거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축하 영상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면으로 축하를 각각 전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

민주당, 부천4),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2024 입법정책토론'의 일환으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향 논의 및 건수령 등 도시와 항만의 상생발전 방향에 필요한 입법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로 글로벌 가속과 세계 항만의 추세에 따른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들며 중국, UAE, 미국 등 항만 기반 물류 플랫폼의 선진 사례를 통해 평택항과 항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자 송효진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해결, 항만 배후지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도시발전의 핵심 축인 항만과 도시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환경정의 관점에서 항만과 배후지역의 상황, 주민 수용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 최성일 (사)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항을 거점으로 한 경기도의 지속 발전 전략과 방향이 필요하며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 김기수 평택시 민선문 대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할 재정립을 통해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평택항을 아름다운 항구도시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언급했다.

또, 세 번째 토론자 김종길 (전)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은 평택항이 나아가 할 비전 수립과 실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확신하며, 혁신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 권용숙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 물류항만정책팀장은 앞으로 평택항 항만물류클러스터와 배후 단지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의견 반영을 건의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의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평택항이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하며 문화로 이어져 아름다운 항구도시로의 변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의견들을 기초 삼아 새로운 국제무역항의 명성과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입법 등 제반 정책 사항을 세밀히 살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NH NongHyup**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 신학기 우리아이 급식, 걱정하지 마세요!

## 경북도,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00여 곳 합동점검 개학 첫 주간, 교차 위생점검 실시 강화로 식중독 선제적 예방관리

경북도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 주관으로 대구시 약청, 도 교육청,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협력해 초·중·고·대학교, 유치원 급식소 629개소와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 218개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급식을 재개하는 개학 초 주간에는 위생 취약 시기로 식중독 발생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등에 대해 15개 반 41명의 합동점검반으로 교차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 기준 준수 ▲ 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 ▲ 비위생적 식품 취급 ▲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 조리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0여 개 품목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 수거검사도 병행 시행해 위반 영업자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즉시 회수·폐기 조치한다. 아울러, 도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식중독 발생 분석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환자 수의 41%(778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 중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79%(613명)로 가장 높았다.

이에, 학교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대장균은 채소,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 등의 처리 요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충분한 세척 방법 등 식재료 보관, 전처리, 조리, 저장 및 배식 단계별 위생관리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급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중독 사고 시 대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학생들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고, 급식관계자들은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주민이 만들어가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 안동을 위한' 안동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업무협약

안동시,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공동 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 도모 상호 화합과 교류 증진 및 지역주민의 복지네트워크 협력 권기창 안동시장, "이 협약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동시는 지난 달 29일, 안동시청 소 통실에서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단체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정철환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장 ▲정태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총장 ▲차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총장 ▲이미경 영호초등학교장 ▲이상무 북주초등학교장 ▲유하영 안동시가족센터장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박우주 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뜻을 같이했다.

이 협약을 통해 수행기관인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운영인 하, 연계·협력기관인 국립안동대, 안동과학대, 가톨릭상지대학교는 AI 돌봄 사업 효과성 연구/학생 자원봉사 및 SNS 홍보를 지원한다. 영호초등학교와 북주초등학교는 초등부 돌봄 사업 연계 아이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안동시가족센터는 돌봄교사 파견 지원, 안동의료원과 안동시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노인건강 사업 지원, 안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족한 서비스 및 자원 발굴 등을 지원한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구로 선정, 집중지원 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의 영역을 넘어 교육·보건·주거·환경 등 사회보장 전반적인 영역을 다룬다. 이 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공모에 안동시가 선정돼, 수행기관인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철환)과 함께 옥동(2, 6, 7단지)을 대상으로 4년간 총 985백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2023년에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와 기본계획을 작성했고 2024년부터 민·관·학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상돌봄 지원, 주민조직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며, 소외 없는 약자 복지를 통한 복지 안동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오전 9시,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 정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타종 행사 진행



대구광역시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 지난 1일(금) 오전 10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호헌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3·1절의 참된 의미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장기간 지속된 경제불황으

로 힘든 시민들에게 대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행사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시립교향악단의 현악 9중주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축하공연인 창작뮤지컬 '광야에서 봄을 노래하라'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시를

쓰고 태극기를 흔들고 총을 들었던 이상화와 이육사, 이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몸 던져 싸웠던 의인들을 가슴속에 기리는 이야기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제105년 이날, 3·1절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호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참배가 있었으며, 정오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시장, 호헌단체장, 광복회원 등 180여 명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 행사를 가졌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제105주년 3·1절과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지난 달 20일(화)부터 각 가정, 기업·단체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전개해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 및 대구사랑 문화를 확산시켰다. 또한,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생계곤란 손자녀에 대해 위문·격려하고, 2월 29일(목)부터 3월 2일(토)까지 3일간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에 한해 대구도시철도 무료승차를 실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조국 독립과 민족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하며, "3.1운동 정신과 이를 계승한 대구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굴기(大邱崛起)'를 향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입암에서 펼쳐지는 화합과 전통의 장' 제13회 입암면민 화합 민속 율놀이대회 개최

영양군 입암면에서는 지역사회 단합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13회 입암면민 화합 민속 율놀이대회가 입암애향청년회 주관 하에 지난달 29일(목) 입암면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율놀이 대회는 각 기관단체장과 출향인사를 비롯한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및 기관단체 등 약 60팀의 율놀이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입암애향청년회에서는 행사를 위해 풍성하고 다양한 경품 및 음식들을 제공했으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모든 참가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근수/기자

또한 입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무료로 차 나눔행사를 진행해 추운 날씨에 훈훈함을 더했다. 이인수 입암면장은 "면민들의 화합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입암애향청년회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따뜻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주규 입암애향청년회장은 "많은 주민의 참여 덕분에 더 풍성한 민속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었다"라며 "참가자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동행매니저가 병원까지 함께 합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본격 시행!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 1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69명의 동행매니저와 차량을 이용해 부산 전역을 누비며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병원 이동 보조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해 시민들의 병원 이동 및 이용을 지원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로, 집에서 출발해 병원 도착,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및 귀가까지 병원 이동과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몸이 아

파서 병원에 가기 힘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병원 이동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있어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돌봄을 받을 수 없어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1시간에 1만5천 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경우 시에서 요금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부산은행과 (주)세정

롭이 각 5대의 차량을 지원했고, 1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69명의 동행매니저를 모집하고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성교육을 완료했다. 한편, 29일 오후 2시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발대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박형준 시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박순호 (주)세정그룹 대표이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보고, 인사 말씀, 축하,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특히, 이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차량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동행매니저들의 선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사업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돌봄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부산 곳곳에 스며드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청송의병장 소류 심성지선생 서거 120주년 추모식 개최

청송군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896년 병선창의 당시 청송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국난 극복에 몸 바쳐 헌신한 의병장 소류 심성지 선생 서거 120주년 추모식 행사를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30분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류선생기념사업회(회장 심홍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날 행사는 추모식과 함께 소류선생의 생애와 학문이라는 주제로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융합본부장의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류 심성지 선생은 189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등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때 66세 고령

의 나이에 청송의병장 창의장으로 추대되어 안덕 감은리 전투 등지에서 전공을 올렸으며, 이후 항상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수십명의 문하들과 함께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하다가 1904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선생이 남긴 유작(遺作)으로는 당시 서거들이 전두상황 일기를 모아 기록한 「적원일기」를 비롯해 「소류문집」, 「강병론」, 「영야음」 등이 보존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소류심성지 선생의 얼은 선비정신과 구국충절 정신을 높이 받들어 지역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인 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민·관·군·경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경상북도는 지난 달 29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와 공동 주재로 국가방위요소 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주관 중앙통합방위회의(2024.1.31.) 후속으로 2024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의회, 국정원 대구지부, 교육청, 지역군부대, 대구·경북 경찰청, 소방서 등 주요 기관장 130여명의 통합방위작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중동지역의 테러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수중 핵전력 무기 시험발사 등 현재 한반도가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

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는 시기적절했다.

올해 회의는 국제적인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사전 예측·감시·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기관리대응센터 신설하여 재난의 복합·밀집화로 인한 대형화, 예측 불가능 속에 도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관(官) 주도 사후 대응에서 민·관 협력 사전 예방 체계로 대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북한 대남 위협 전망 ▲2023년 통합방위분야 추진성

과 및 2024년 추진방향 ▲북한 기습공격 시 지자체 대비 방안 ▲북한 핵대미 국민보호대책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에 기관별로 발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재 안보 위협뿐 아니라 대형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에 최우선 중점가치로 두고 전기관이 평소 협업체계 및 자원 동원 준비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서애 류성룡 선성의 징비록을 인용해 스스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기관별로 위기 상황 발생 시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숙지, 자원 동원 등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금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만큼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을 위해 지역 군부대인 제50보병사단,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의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된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저출생 대응 전담조직 키포프 회의 개최

### 김주수 군수, TF 구성 계기로 인구·저출생 문제에 대한 과감한 정책들을 모색, 경북도와 전국 대표모델이 되는 의성만의 저출생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히

의성군은 지난 29일,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키포프 회의를 개최했다.

저출생 대응 TF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생애주기별 일자리, 주거,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교육, 보건·의료, 문화·복지 6개의 대책반이 함께 구성되었다. TF는 기존의 인구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생 극복 신규 시책 발굴 등 인구·저출생 문제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맡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성군 인구 감소 원인과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정부·경상북도·민간·의성군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

출생 대응 전담조직(TF)의 구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6개 대책 분야에 대한 대응방향과 단기·중기·장기별 계획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 회의를 통해 인구·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인구·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경상북도와 전국의 대표모델이 될 수 있는 의성만의 저출생 대응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주)산수골 지역사회 소외계층 식육가공품 나눔 행사

### 지역아동센터, 차상위계층 아동 등에 돼지고기 3344팩(5900만원 상당) 기탁

농업회사법인 (주)산수골은 지역결식아동 및 차상위계층 등 경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8일 경주지역아동센터 및 안감문화의 집 등에 돼지고기 3344팩(59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예병원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장, 최수아 (주)산수골 상무,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식품은 경주시 관내에 있는 28개 지역아동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산수골은 경주 안감을 및 경북지역에서 11만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무항생제 및 2년 연속 소시모 인증을 받은 건실한 회사로 매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돼지고기 등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만나는 거래처마다 경주시민의 염원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홍보하는 등 경주시정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최수아 (주)산수골 상무는 “경주 지역 곳곳에 운영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병원 농림축산해양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로 지역 소외계층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 2024년 1분기 소비·투자 집행 점검회의 개최

통영시는 지난 달 28일, 시청 1층 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소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형호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점검회의에는 17개 사업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집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중점 추진 사항으로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 1,305억 원 100% 집행 ▲투자분야 주요 사업 1분기 내 선금, 기성금 최대 집행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활용 지침과 지방계약 특례 적극 활용 ▲인건비, 물건비 등 소비분야 당겨

집행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형호 부시장은 “이번 점검 회의는 민생 경제 안정에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 부서가 협력해 추가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준/기자



# 영덕군, 2024 전통시장 러브투어 개시

영덕군, 지난 1일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단체 30명 이상 버스비 지원 관광코스화로 ‘시장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러브투어 개시’해 방문객들 투어 지원 위해 ‘시장 매니저 도우미’ 배치, 시장 상인회와 협의 친절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김광열 영덕군수, “러브투어를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영덕군은 전통시장의 관광코스화로 시장 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운영한다.

이에 타 지역 단체관광객들이 영덕군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관광을 겸해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1대당 5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대상 시장은 영덕, 강구, 영해 전통시장이며, 5일 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대형버스 1대 기준 30명 이상의 인원이 전통시장에 방문해 1시간 이상 머물면서 장보기 행사를 하면 지원 조건이 된다.

이 밖에도 영덕군은 방문객들의 소중한 투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 매니

저를 도우미로 배치하고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친절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작년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을 올해도 시행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러브투어를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덕군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희망하는 30인 이상의 단체는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730-6233)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 경북 봉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쾌거!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발전특구 모델 수립

박현국 봉화군수,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봉화군이 교육발전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

경북 봉화군은 지난 달 28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총 40건이 접수된 가운데 경북은 9개 시군이 신청해 8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봉화군은 ‘이주사회를 대비하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수립으로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며 봉화군이 속한 관리지역은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



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봉화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봉화군의 특구 모델을 살펴보면 역점사업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과 연

계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살기 좋은 글로벌 이주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이주사회에 대비한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존성, 다양성, 수월성, 포용성을 제고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지향했다.

윤근수/기자

# ‘태극기 휘날리며’ 3·1절 기념 대형 태극기 제양

### 금정구, 제105주년 3·1절 기념 대형 태극기 제양식 개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독립만세운동 정신 기려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1일 8시, 경부고속도로 입구 만남의 광장 내 태극기 광장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 대형 태극기 제양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대형 태극기의 한 자락을 잡고 제양식에 직접 참여하며, 대형 태극기 제양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번 대형

태극기 제양으로 지역주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이 고취됨은 물론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마음가짐을 굳건히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만남의 광장 대형 태극기는 제양대 높이 51.5m, 국기봉 지름 0.8m이며, 태극기는 가로 12m, 세로 8m, 30평에 달하는 크기로, 2002년 11월부터 제양되기 시작했으며, 부산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입구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 이철우 도지사, 윤석열 대통령께 포스텍 의대 설립 강력 건의

##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윤석열 대통령께 포스텍 의대 설립 건의... 적극 검토 포스코에서 병원 건립하면 연구중심의대도 가능해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스코에서 병원을 지으면 정부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없으니 포함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도 희망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포스텍 의대 설립을 논의하는 모습.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강력히 건의했으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는 검토가 어렵고 다음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포스텍에서 간담회를 열고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이 지사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차례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내정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포

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탄탄한 바이오 인프라 △근근한 지역 의료계와의 유대관계 △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이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의학은 과학과 모두 융합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서 병원을 건립하고, 포스텍 의대 설립으로 의료기반이 부족한 경북에 차별화된 의사과학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2024년도 청송군농업인대학, 「힘찬 개막!」

## 윤경희 청송군수, 「시대가 변화 흐름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나아가 청송사과 산업의 미래가 되주길 바란다.」

청송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청송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가지며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 입학식에는 제2기 청송사과사과관학교, 제21기 친환경사과반, 제14기 미래농업반 3개 과정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130여명 입학생들이 자리를 빛냈다.

청송군농업인대학은 2004년 처음 설립되어 청송군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 전문농업인 배양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청송사과사과관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현재 농촌에서 문제되고 있는 농촌인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는 다축·2축·밀식과원의 정지, 전정과 현장중심의 실습 및 이론교육 체계를 확립하였고, 이어 올해에는 청송명품사과 산업을 선도할 청송사과명장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과정별 연간 총 19회~22회, 80~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청송군농업인대학 학장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대학 학생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장차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나아가 청송사과 산업의 미래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에 김남일 前 포항시 부시장 임명

## 김남일 사장, 경북의 인문산수(人文山水)를 활용해 경북 문화관광의 새로운 50년 열어갈 것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김남일 전 포항시 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2월 27일까지 사장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번에 걸친 공모 끝에 경북도는 지난 2일 김남일 전 포항시 부시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28일 사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과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체육, 환경해양산림, 경제통상, 투자유치 등 다양한 공직 경험을 가진 김남일 사장이 미래 경상북도의 새로운 문화관광 가치 창조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낙점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열린경영과 청렴경영이라는 기치 아래 임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며 공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특히 2025년 창립 50주년을 대비해 경북의 인문산수(人文山水)를 연계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전략

을 수립해 미래 경북 문화관광의 새로운 50년을 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누구나 찾아오고, 가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경쟁력 이 핵심이다”며, “신공화 시대를 맞아 우리 경북이 보유한 천혜의 문화관광 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전 세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김남일 사장은 1967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9년 행정고시(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공보처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해지역본부장, 경주시 포항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2024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달 28일(수),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영양군 학교급식위원회는 관내 학교 및 학부모 대표위원, 군 및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농산물 생산자단체, 학교급식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 등 고품질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형성과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본 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심의한 내용은 금년도 기준 유치원 6개소 초·중·고 13개교 총 968명의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 3개사

업 총 8억 2천여만 원 지원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또한 관내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방안, 학교 돌봄사업 추진현황, 학교급식 식량 확대 방안,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량 제공 방안, 관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연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박준로 위원장(영양군 부군수)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영양군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지역 글로벌대학 지정에 총력 지원!

## (신설)대학정책국장 단장「글로벌대학 지원단(TF)」구성·운영 1차 킷오프 회의 개최(2.29.(목) 오전 10시/산격청사 대회의실) 대구광역시 발전전략 및 지역산업 성장 연계 인적·물적 활용 방안 논의

대구광역시는 교육부가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을 발 빠르게 구성해 지역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글로벌대학30 지정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일반정체지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전국 신청 대상 대학 166교 중 65%인 108개교가 신청해 10개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10개교를 지정하고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는 경북대, 계명대, 대구고대, 대구보건대 등 4개교가 신청했으나 아쉽게 글로벌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올해는 경북대, 대구고대를 비롯해 계명대(계명문화대학·통합신정),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영남대와 통합신정) 등 대구지역 8개교가 글로벌대학에 도전장을 내민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이 발표되자 속도감



있게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을 구성해 지역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글로벌대학 지원단(TF)’은 다음 달 신설되는 대학정책국의 국장을 단장으로 미래혁신성장실 8개 부서를 비롯한 대구광역시 15개 부처와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이 주축이 되며, 2월 29일(목) 1차 킷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단은 글로벌대학 지정 공동 대응을 위해 시, 대학,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청대학 개별 컨설팅은 물론 대구광역시 발전 전략 및 지역산

업 성장계획과 연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글로벌대학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실현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글로벌대학이 지향하는 지역 밀착형 혁신전략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이 이끌며 지역의 세계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에서는 지역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 지원은 물론, 앞으로도 혁신전략을 강화하고 대학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2.29. 14:30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 참석 예정

부산시는 29일 오후 2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후보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민간 제안 사업 방식으로 구덕운동장 일대를 복합개발(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보증기금 융자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방식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시는 국비 최대 250억 원과 시비 250억 원을 사업 재원으로 확보하게 된다.

시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현물출자(토지)로 제공하고, 향후 사업 준공 후 현물(건축전용 경기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로써,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 후,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개발 사업 관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부산 도시재생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혁신지구(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예

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향후 원도심 도시재생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부산 도시재생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경북소방본부, 농막·비닐하우스 화재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 총 529건의 화재 발생, 인명피해도 25명에 달해 올해에도 농막10건, 비닐하우스 13건 등 총 23건의 화재발생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농막 및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시설 이용 시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경북지역 내 농막과 비닐하우스에서 총 5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2건의 농막 화재로 인하여 부상자 10명의 인명피해와 약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317건의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

부상자 15명의 인명피해와 약 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으로 살펴보면 농막 화재는 부주의(85건), 미상(61건), 전기적 요인(39건), 기타(15건), 기계적 요인(12건) 순이었으며, 비닐하우스 화재는 부주의(98건), 전기적 요인(91건), 미상(85건), 기계적 요인(22건), 기타(21건)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주요한 화재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에도 1월부터 현재까지 농막 10건, 비닐하우스 13건 등 총 2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1월 성주군 소재 농막에서 화목보일러 불씨 처리 부주의가 원인이 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월에는 경주시의 농막에서 전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포항시 소재 비닐

하우스에서는 먼지가 쌓인 콘센트에서 생긴 스파크가 원인이 된 화재가 발생했다. 농막 및 비닐하우스 화재를 예방하려면 규격과 용량에 맞는 전기 설비 사용, 주변에서의 쓰레기 소각 금지, 먼지나 수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콘센트 사용하지 않기, 흡연 후 완전한 불씨 제거, 내부에서는 전열기구 사용 자제 등을 실천해야 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농민기를 맞이하여 농막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경상북도 소방본부도 화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최종 선정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울진군은 지난 28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교육발전특구”지정을 2월 초 신청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청정에너지 특화교육의 중심지 울진”을 비전으로, 3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지난 1월 11일, 울진형 교육발전특구의 추진전략 개발과 규제개선사항 발굴, 기업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손병복 울진군수와 황석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울진군 교육발전특구 추진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같은 날, 울진군은 추진 협력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안)”를 발표했는데, 손병복 울진군수와 위원들은 기획서(안)을 바탕으로, ▲농북학교 운영방안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 방안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과 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방안 ▲대학교 유치 및 특례 입학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28건의 소중한 의견을 받았다. 1월 23일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기관으로는 울진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교육청뿐 아니라, 3개 대학교와 4개의 국가산업 입주예정 대기업(롯데케미칼, GS건설, GS에너지, 비에이치아이)이 함께 하였다.

통해 산업수요 혁신인재 양성 교육기반 구축,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등록금 무상지원, 고졸취업자 진학지원, 10년간 1주거비 지원, 결혼지원금 5천만원(연 1천만원, 5년간), 출산장려금, 아이돌봄 가계부담 제로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울진군은 “울진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를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대기업에 연계 및 취업시키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순환 과정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 1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기획서 대면심사를 거쳐 28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울진군이 최종 선정 되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 된다. 또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군은 고교-대학을 연계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와 울진 원자력수소 U시티 추진을

“더불어”울진형 교육발전특구”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타 면제 추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시대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은 지역 내 인구 유출을 막고, 원자력수소에 특화된 교육제도를 통해 울진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 울진군이 앞장서서 교육청, 대학, 기업과 협력하여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경북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국비 10억원 확보

### 경북 22개 시군 물샐틈없는 공공분야 안전강화 기반 구축!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대응 체계 구현!

경상북도는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부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경북 5개 시군(문경, 청송, 영양, 성주, 칠곡)이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통해 국비 10억원(각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시스템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안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광역 재난·안전 플랫폼 기반 시스템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과 현



장영상, 수배차량 검색 지원(경찰) △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소방) △재난상황 대응영상 지원(행안부) △전자발차 위반자 신속검거 지원(법무부) 등이 있다. 국비를 확보한 5개 시군은 개소당 4억 원(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씩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6월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안부(NDMS), KBS, 기상청, 국토지리원, 경북경찰청, 경북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재난·안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그동안 미완으로 남아있던 5개 시군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무리함으로써 ‘경북 22개 시군 전체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은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안전 등 위기상황 시 재난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기상정보, 공간정보 등의 실시간 재난정보 수집·제공체계를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완전한 공공안전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도 전체 스마트 도시안전망과 더불어 경북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에 더욱 효과적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대한독립만세!그날의 합성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 “3.1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영주시는 지난 1일, 영주시민회관에서 ‘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3.1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 영주·봉화 연합지회, 농고 오하근 선생 추모회, 기려자 송상도 지사 기념사업회, 이현구 선생 생현우계회,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등 보존 및 안보단체 회원, 학생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주선비관학합주봉사단의 사전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기념사 및

축사 ▲독립선언서 낭독(광복회 대의원 전동호) ▲오카리나합주공연(초록담쟁이) ▲영주여성합창단 공연 ▲만세삼창(선창:농고 오하근 선생 유족대표 오원섭)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복을 위해 한마음을 외쳤던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며 그날의 합성을 되새겼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외



부전시물과 포토존은 참가한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3.1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동래구, 2024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

부산 동래구는 부산광역시 주관 ‘2024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시비 4484만5천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인복지 현장 맞춤형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로 하는 노인 현장맞춤형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형 사업이다. 교육훈련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 의지가 있으나 실무경험과 관련

전산시스템 활용역량이 부족한 동래구 거주 미취업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 및 소양교육, 취업대비 교육 등 총 13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2회(1기 4월~5월, 2기 6월~7월)에 걸쳐 실시되며 사업수행기관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은전동 소재)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 동래구의 지역특성과 일자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률·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2024년 군위형 마을만들기」새싹마을 리더워크숍 열려..

### 씨앗마을 넘어, 새싹마을 2단계 사업 본격 시행 김진열 군수,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 첫 시작을 함께한 여러분들 경험과 시행착오 다음 씨앗마을 리더들에게 이점표가 될 것” “향후 마을만들기사업에 적극 동참바란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난 29일(목), 효령면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새싹마을리더, 공무원, 군위군 농촌활력지원센터, 기타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형 마을만들기」 새싹마을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해 첫선 보인 「군위형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형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2023년 3월, 73개 씨앗마을을 선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후 12

월,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 대상인 새싹마을 62개를 최종 선정했다. 새싹마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앞에 앞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갈지마을 박성세 추진위원장의 마을만들기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활력과 지역전략팀장의 군위형 마을만들기 추진상황 및 일정 보고 ▲군위군 농촌활력센터 사무국장의 새싹마을 사업추진 세부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해 씨앗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가고자 올해는 사업추진 체계를 다양화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은 “오늘 자리한 마을 리더분들은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시작을 함께한 분들이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다음 씨앗마



을 리더들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마을만들기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 292억원 투입

## 조사료 생산지원 확대로 소 사육농가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및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추진

경상북도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에 292억원을 투자한다.

경북도는 전국 한우 생산의 21.6%인 75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으뜸 지역이나,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2.5~6.7% 하락한 15,500~16,200원/kg으로 전망(농협-한우수급동향) 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축산농가들의 경

영난을 해소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조사료는 축산물 생산비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사료비의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292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비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지원,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 등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150억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29억원, ▲도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중소형 조사료 생산장비, 생산장려금 등에 11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사료 전문단지를 경주시 천북면 일원에 110ha를 신규 지정받는 등 총 2,082ha를 조성·운영하고,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벼 대신 하계 조사료 215ha를 재배하여 조사료 가격 안정과 함께 쌀 수급 안정에도 앞장선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은 “조사료는 올해 캐나다를 시작으로 2026년 미국, 2028년 호주까지 FTA 수입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됨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도는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의 육성과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논 하계조사료 재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북 농업 대전환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강남구,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으로 법적 대응력 높인다!

## 지난 2월 21일 위촉 계약 체결...특화된 법률 서비스로 연간 180여 건의 소송 수행 능력 제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1일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강남구 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행정 소송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안이 복잡한 긴급 법률 자문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그동안 법률전문가 등 사람만 위촉했던 특별법률고문 자격에 기관도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다양한 법률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로펌 전문기관을 위촉해 법적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는 방침이다.

대치동에 소재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행정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법률자문 및 입법지원에 특화된 법률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는 연간 180건 정도 되는 강남구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번이 지난 13년간 유지해오던 법률고문 전문료를 올해 기준 대비 100% 인상했다.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자문 수당으로 법률 자문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을 계기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서대문구 대학생 강사 '서치쌤', 중1 수학 과목 동영상 강의한다

##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첫 추진



서대문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대학생 강사인 '서대문 서치쌤'이 관내 중학교 1학년생을 위해 온라인 수학 강의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모집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강의시연을 통해 6명을 선발했다.

참고로 '서치쌤'이란 명칭은 서대문구 홍보용 캐릭터인 '서치'(서대문구 까치)에서 착안해 정했다. 대학생 강사인 '서대문 서치쌤'은 중

학교 진학 이후 어려워지는 수학 과목을 맡아 강의한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누구나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녹화된 강의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이성현 구청장은 이달 23일 열린 위촉식에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대문 서치쌤들이 사명감을 갖고 강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상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으로 선정

## 강영석 상주시장, “특구 지정으로 선순환 체계 구축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력,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적극적 연계·도입과 미래 교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

상주시는 정부 균형발전 사업인 4대 특구 사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선정현황은 총 31건(선도지역 19, 관리지역 12)이며 시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상주시에서는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 K-상상주도특구”를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학령 인구 감소, 교육격차 해소 등 지역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돌봄-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살기 좋은 교육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협력 기반 교육 공동체·돌봄 체계 활성화로 ▶거점형 유보통

합 운영모델·돌봄 운영모델 개발, 이용자 중심의 보육지원과 지역 가정 돌봄 해소의 전기 마련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을학교, 평생학습원 등 지역자원 적극 활용, 지자체-교육기관-지역사회협력 기반 돌봄체계 활성화를 추진하며,

▲상주형 교육지원 모델·도입 확산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수요자 중심 교육공간 감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 ▶개별 학생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 교육 지원사업 추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 디지털 선도학교 확대 등 공교육 혁신, 강화 기반 마련.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한 청소년 복합공간 조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읍면지역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지속 추진 ▶작은 학교 지원 확대를 통한 읍면 지역 인프라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입주 등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 이차전지연구소 설립, 현장 일체형 교육과정 개발 등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시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주도 교육개혁 및 공교육 경쟁력 확보, 지역인재 취업과 거주로 이어지는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김동현/기자

# (재)예천문화관광재단, 올해 첫 정기이사회 개최

## 2024년도 주요사업 및 예천활축제 추진계획 보고와 2023회계연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김학동 이사장, “올해 시행하는 축제·행사 및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당부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학동)은 28일 오후 4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고 2024 예천활축제와 올해 주요 사업들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이사장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올해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결 했다.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어린이날 주간에 개최하는 2024 예천활축제부터, 여름방학에 곤충 & 서머 캠페스타, 추석 연휴에 삼강나루터축제, 가을에 금강야행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비롯해 문화회관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등 총 12건

의 사업을 추진한다. 예천문화회관은 올해부터 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김학동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뿐만 아니라 예천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올해 시행하는 축제·행사 및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선일/기자



#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성북구, 의료비 40만원 지원

서울 성북구가 관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3월 1일부터 관내 5개 동물병원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기초건강검진 등 필수진료비와 질병 치료비 등 의료비용을 지원해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다. 구 관계자는 3년간 약 153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더 많은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의료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 동물병원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렸다. 지원 대상인 개와 고양이도 약 100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된 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지정동물병원에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해당 병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30만원 상당의 필수진

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20만원 상당의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구와 참여 동물병원의 재능기부 금액까지 더하면 마리당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에 육박한다.

성북구 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5개 동물병원은 드림동물병원(동소문동), 태양동물병원(석관동), 더편동물병원(길음동), 미소

동물병원(종암동), 대학동물병원(장위동)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해 사업은 참여병원과 지원 마릿수를 늘려서 반려동물 질병 치료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안내**

**대상**  
- 성북구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제외 불가)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가능(1인당)  
-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신청기간**  
- 2024. 3. 1.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내용**  
- 필수진료 (30만원 상당)  
- 선택진료 (20만원 상당)  
-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진료(최대 1만원 상당)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 선택진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신청방법**  
- 지정동물병원 관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병원  
- 홈페이지  
- 신청서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작성 확인서, 반려동물등록증 사본 (2인 이상 4인 이하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www.bokji.go.kr, 전화 24(www.gov.kr) 24시간 응대 가능)

**지정 동물병원**  
- 동양동/미소동물병원 02)929-1212  
- 동소문동/드림동물병원 02)928-7582  
- 석관동/태양동물병원 02)969-0075  
- 길음동/더편동물병원 02)982-7975  
- 장위동/대학동물병원 02)918-3344

공공기관 사찰인 의료사업, 지역경제력 (02-2241-3932)로 연락주세요.

**약자와의 동행**  
**우리동네 동물병원**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성북구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지정 동물병원에 문의 후 지원 신청하세요~

sb 성북

# 전남도, '케이-디즈니 순천' 도약 잔걸음

## 29일 국내 최고 종합문화콘텐츠 기업 로커스와 업무협약



문화산업도시 'K-디즈니 순천'으로 도약 (주)로커스 투자유치 업무협약식

전라남도는 29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시,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주)로커스와 함께 '케이(K)-디즈니 순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관규 순천시시장, 홍성호 (주)로커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신설·이전 투자 및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 ▲기업의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전남도·순천시의 인재 양성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종합문화콘텐츠 기업인 (주)로커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천525억 원의 대

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주)로커스 본사를 순천시로 이전해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및 콘텐츠 체험 공간을 조성, 지역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획발전특구(문화콘텐츠)를 추진, 순천시가 케이(K)-콘텐츠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 지원은 물론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정착하도록 돌봄에서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

### 전라남도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주)로커스 이외에도 31개 도내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입주)의향서를 받았으며,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준 (주)로커스에 감사하다"며 "케이(K)-디즈니 순천을 선도할 (주)로커스가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계 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고, 전남의 문화콘텐츠 산업도 힘차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주)로커스와 업무협약 체결 'K-디즈니 순천' 속도 낸다!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12편의 애니메이션 제작 등 1,600억 원 규모 투자

순천시가 29일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전라남도, (주)로커스(LOCUS)와 'K-디즈니 순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로커스는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끈 '레드스즈', '유미의 세포들', '퇴마록' 등의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로, 최첨단 제작 기술과 IP(지적재산권)를 모두 보유한 국내 대표 문화콘텐츠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가상 인물루언서 '로지'를 제작한 '로커스-X'와 영화 '타짜', '살인의 추억', '8월의 크리스마스'를 제작한 '㈜싸이더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매년 450여 편의 광고를 제작해 애니메이션을 넘어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 전반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가 자문 등을 추진해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지역에서 시장을 선도할 역량있는 선도기업(엔터테인먼트)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주)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의 본사 이전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정원을 넘어 문화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며, "순천시가 월트디즈니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로커스가 픽사 스튜디오, 순천대가 UCLA 역할을 수행해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합심하여 고급문화산업 전진기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홍성호 (주)로커스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기획발전특구 지정, K-디즈니 순천 완성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는 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행·재정적 지원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앞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국외 연수와 관련 분야 기업 면담, 전문

인력 등을 추진해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지역에서 시장을 선도할 역량있는 선도기업(엔터테인먼트)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주)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의 본사 이전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정원을 넘어 문화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며, "순천시가 월트디즈니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로커스가 픽사 스튜디오, 순천대가 UCLA 역할을 수행해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합심하여 고급문화산업 전진기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기업과 세부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투자 조항 등 협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합의각서(MOA) 체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상반기까지 협약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한편,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획발전특구는 오는 3월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승훈/기자

# 함평군, 목포미래병원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0% 감면 협약

## '240만원 지원금도 받고 진료비 10% 감면도 받고' 효과 특출

함평군은 "지난 29일 목포미래병원과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진료비 본인부담금 10% 감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광주 세계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번째다.

이번 협약식은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양경호 목포미래병원장과 병원 관계자, 함평군 보건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진료비 감면을 위해 체결됐으며 목포미래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10%를 감면한다.

목포미래병원 의료비 감면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주민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술 전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함평군은 지난해 3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60세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한쪽 무릎에 120만원, 양쪽 무릎에 240만 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1년만에 150여명 2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고장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남원시, 취약지역 개선사업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30가구 이상 지역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이상인 지역이다.

지구별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돌로 만든 경관과 안전 대강 입암마을 21년 공모에 선정된 입암마을은 총 사업비 17억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진행된다.

22년 농식품부를 통해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23년 3월 공사에 착공했다. △빈집정비 20호 △공용주차장 조성 522㎡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8동 △재래식 화장실 철거 5개소 △옹벽정비 1,550㎡ △담장정비 51.79㎡ △주민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 사업을 완료했으며, 담장 및 옹벽 추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6월 준공예정이다.

# 사랑을 나누고 온기를 품은 산내 입석마을, 함께여서 더 빛나는 연꽃등불 수지 등등마을

23년 공모에 선정된 입석마을과 등등마을은 각각 총사업비 20억, 19억을 투입하여 26년까지 진행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중이며, 24년 6월 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내용으로는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담장, 마을안길) △주민교육 등이 있다.

# 아름다운 품은 이백 계산마을, 당산이 포근히 품어 아늑하고 행복한 대강 강석마을

한편 지난 23년 6월 공모에 선정된 이백 계산마을과 대강 강석마을도 각각 17억, 14억을 투입하여 24년부터 27년까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들 마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성장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실시하여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는 취약한 농촌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위생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명품 교육도시 활짝' 나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됐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대학, 고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개설 운영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방 교육 혁신을 선도할 정부 정책사업인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28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고교, 대학까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계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학생,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대도시 유출을 막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지역에 정주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공공기관은 30~100억원 규모 정부 재정지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교육 분야 정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나주시는 2024년 새해 목표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성공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민선 8기 10대 역점사업 첫 포문을 열었다.

올해 들어 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고등학교, 기업협의회 등 16개 기관과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구 사업 관련 시인 아이디어 공모,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구 사업 발굴에 힘써왔다.

나주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인재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나주시'를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된다.

큰 틀에서 함께하는 돌봄 교육, 글로벌 특화교육,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 4대 전략과 17개 세부사업을 구성했다.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너지밸리)이 입지해있는 나주형 특구 모델 강점을 살려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지역 대학, 일반고교·특성화고교 등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나주고·매성고·봉황고 등 자율형공립고 고교학점제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과 나주공고·나주상고·전남미용고·호남원예고 등 특성화고교 간 융복합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나주공고의 경우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에너지밸리 기관·기업과 연계한 기계, 전기·전자 분야 특화교육을 도입한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동신대,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 등 에너지 산업 관련 대학 진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에너지밸리 산학연 기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춘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남과학고와 연계해 연구, 실험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 주요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단일학교형 돌봄학교 운영', 'IB교육과정',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체계(ALC) 구축', '생활권역별 교육자치지구 운영', '매성고·봉황고·나주고 등 자율형 공립고 2.0지정 확대', '전남과학고-한국에너지공단 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에너지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주체계 구축',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선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나주에서 양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연계한 나주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교육의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위해 나주를 찾는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 2024 강진청자축제 '체험 그리고 감동' 3월 3일까지 열려

삼일절 연휴와 함께 시작되는 춘삼월, 꽃샘 추위 속에서도 겨울보다는 봄 가까이에서 귀하심 몸, 흥매화도 보고 유채꽃도 즐기며 청자의 고유한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강진청자축제'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3월 3일까지 열린다.

청자축제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국가 지정 최우수축제 15회, 대표 축제 2회, 집중 육성 축제 5회 등에 선정돼 왔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다.

강진은 고려청자의 본산으로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청자요지의 50%인 188개소가 지표 조사를 남았다. 기술과 미학의 극치, 고려청자를 만나러 삼일절 연휴에는 '강진청자축제'로 떠날보자.

축제장 서문 입구(마량 방향)에 도착하면 미니열차가 기다린다.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출발하며, 총 5량의 열차로 미니열차가 축제장을 한 바퀴 돌아준다. 소요 시간은 12~13분이며 이용료는 1인당 2천원이다.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자 축제의 다양한 체험 거리 가운데 으뜸은 단연 '물레성형'이다. 청자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내 손끝을 통해 물레를 돌리며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물레성형체험은 축제장 서문 입구쪽 따뜻한 에어돔 안에서 진행되며, 강진군 청자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법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체험비는 5천원이다.

비석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는 청자를 구울 때, 섭씨 1,300도 이상의 불이 필요하다. 고려청자박물관 옆에 조성된 대형화목가마(8m\*1.8m)는 실제로 청자를 구워내는 가마로, 축제 기간엔 열흘 동안 개방 시간동안에는 꺼지지 않고 불길기 타오른다.

화목가마 입구에는 판판하게 다듬어진 나무가 놓여있고 한해 소원을 적어 화목가마에 태워보는 일명 '화목가마 소원태우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체험비는 1천원이다. 마음을 가다듬어 소원을 꼭꼭 눌러 쓰고, 이를 다시 화목가마에 넣어 불태우는 체험도 이색적이다.

화목가마 맞은편에 자리한, '불명캠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유를 선물한다. 불명을 가만히 쬐며, 타오르는 장작에 시선을 맡긴 채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담고기나 구구마, 마시멜로 등을 판매하고 있어, 숯불에 구워 먹으며 캠핑 기분을 낼 수 있다.

장작때기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왕년의 실력을 뽐내는 어르신부터 난생처음 도끼를 잡는 어린이까지, 각계각층이 고루 즐길 수

있는 놀이이며 체험비는 무료이다.

모든 관광객들의 특별한 추억만들기를 위해 이번 축제에는 '왕 없는 전통놀이 이벤트'도 펼쳐진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고리 끼우기 등 4가지 종목에 도전만 해도 소소한 기념품들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붐뽀 슬라이드, 빙어잡기는 서문 입구에서 가깝고,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슬라이드는 안전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풍사각을 조금 낮추었다. 어린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또하나의 체험은 자전거 승사탕이다. 자전거 페달을 구르면 눈앞에서 점점 움직임을 볼러가는 승사탕을 관찰할 수 있고, 다 만들어지면 달콤한 승사탕을 맛볼 수 있다. 체험료는 1천원이다.

'브레드이발소'(3월 2일 오전 11시)와 '신바이파트'(3월 3일 오후 1시) 싱어송송도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이라면 놓치지는 안된다. 청자축제장은 물론, 강진읍 아트홀에서도 2일과 3일, 오후 6시 30분에 공연된다.

이밖에도 깨어진 청자조각으로 만드는 입체 모자이크, 샌딩아트, 코일링, 탁본, 동판 뜨기 등의 청자화에 이용한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준비돼 있다.

숨겨진 체험 명소는 '시간여행자'이다. 사극에 나올법한 옷을 입고 축제장을 활보하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띈다. 모두 시간여행자 코너에서 옷을 빌려입은 사람들이다. 한 시간에 5천 원이면 고려시대로 돌아가는 또다른 즐거움과 해방감을 선사한다.

작품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민간요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명품 판매관'에는 청자로 만든 종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청자 AI 편종'이 청자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현대적으로 해석된 신세계를 선물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사든 후회없는 기념품이 실용기이다. 청자박물관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폐막을 앞둔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3월 1일 오후 3시부터 경서예지, 김희재, 전건호가 출연하며 2일, 4시부터 시작되는 '시그널 캠프'에는 색시 디바, 효린이 무대를 달군다.

축제장에서 소비한 금액의 2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최소 5만원 이상 이상이며, 최대 20만원까지이다. 20만원을 소비한 영수증을 해당 부스에 제출하면, 4만원의 지류 상품권을 받는 식이다. 당일 지출에만 해당되며 1인당 한 건에 제한된다.

강진원 군수는 "보고 즐기는 것의 함축이 바로 체험"이라며 "강진청자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 전북도, 방위산업을 미래먹거리 전략산업화 위해 미리미리 공부

## 전북자치도 공무원들, '전북형 방산클러스터'육성 위한 포럼 열어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공무원들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열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산업을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2월 2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임상규 부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 K-방산'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린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은호 前방위사업청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 부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방위산업은 최첨단 신소재 연구개발부터 우주까지 연결돼 있어, 전북의 미래는 K-방산에 있다"며, "작년에는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 어려웠던 방산이라는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부지사는 이어 "그간 우리도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팀도 신설했고, 국내 최초로 학부과정에 방위산업과를 신설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혁신기관과 연계해 방위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강은호 前방위사업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 K-방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강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방위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는 흐름과 동향에 미리 대응하는 지역은 향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소재산업에 감점이 있는 전북은 방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잠재력이 있다"며, "새만금의 풍부한 연구 및 산업용지를 활용, 기존 방산중심도시와 밀접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방산 연구 협업팀 및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목포시, 유관기관·운수업체·시 관련부서 노선 개편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유관기관과 운수업체의 협조를 통한 버스 운행 안정화에 총력

목포시가 다음달 4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본격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 운수업체, 시청 관련 실·과와 노선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합동 회의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목포시는 지난 26일부터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의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노선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이날 집중 논의했다.

특히 다음달 4일 본격 시행과 함께 초·중·고·대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들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을 합쳤다.

이상진 목포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목포교육지원청과 코레일 광주본부 목포역, 목포 우체국, ㈜태원여객·유진운수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노선개편의 추진현황과 공유를 통해 홍보를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경찰서, 우체국 등의 협조를 각 기관 민원실 및 파출소, 우체국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시민 홍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목포교육 지원청에는 등하교 노선을 모바일 학교소식지 'e알리미서비스'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련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다중이용시설 등 홍보물 비치는 물론, 대면 맞춤형 안내 협조 및 VMS(가변정보전광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보류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진 목포부시장은 "새롭게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시민들이 빠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시청 직원은 물론 유관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운수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소 힘들더라도 노선을 완벽히 숙지해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개편 노선안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편 노선을 숙지해 이용하면서 더 이상 멈추지 않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정보단말기(BIT)내에 한글을 겸한 버스번호를 부여하면서 혼선이 있었으나 29일부터는 완전 복구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다.

박종배/기자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오는 3월 10일 예심...축제 기간 중 3월 12일 가계해수욕장 특설무대 본선 녹화 예정

진도군이 오는 3월 12일 고군면 가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진도군민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본선 녹화가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3. 11. 부터 3. 13)가 열리는 고군면 가계해수욕장 일원에서 함께 진행돼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 보배섬 진

도군 알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심 참가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기획홍보실 홍보팀으로 직접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참가 신청률이 저조할 경우 10일 예심 당일 현장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진도군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예심은 3월 10일 오후 1시부터 향토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리고, 예심을 통과한 16팀 내외가 3월 12일 오후 1

시부터 고군면 가계 특설무대에서 공개 녹화방송에 참여한다.

녹화방송은 김신영 사회자의 맛깔나는 진행과 함께 진도출신 국민가수 송가인을 비롯, 김국환, 유지나, 영기, 최영철 등이 초청가수로 출연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진도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완도군, 해양 기후·문화 치유프로그램 만 원에 즐기세요!

##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용 요금 할인



완도군이 해양기후와 해양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만 원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임시 휴관함에 따라 휴관 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해양기후·해양문화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해양기후를 활용한 해변 노르딕워킹과 시청각(미디어 아트), 후각(비누·캔들 만들기), 촉각(조개 모빌·자개 약통 만들기), 미각(유자 마들렌, 해초 롤 만들기) 등 인체 오감을 활용한 해양문화 치유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운영일은 해양치유센터 휴관 기간 중 화, 목, 토요일 주 3회이며,

해양기후는 1시부터 해양문화는 2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용 요금은 이벤트 기간 동안 성인(만 12세 이상) 10,000원, 소인 6,000원이다.

참여 신청은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센터운영팀으로 프로그램 이용일 전날 오후 4시까지 해야 하며, 참여자가 5인 이상이어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해양문화 치유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유 1번지, 치유의 섬 완도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영출/기자

#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및 발기인 총회' 개최

## 지역복지의 통합 협력망 조성을 통해 1004섬 신안만의 지역맞춤형 복지 향상 기대

신안군은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신안군만의 맞춤형 복지사업 조성을 위해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월 28일 창립 및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발기인 12명이 참석해 초대 회장으로 광대석 신안군 복지재단 이사를 추대하고,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 정관, 운영 규정 심의,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 선출 등을 의결했다.

광대석 회장은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서 신안군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복지

협력망을 구축,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1004섬 신안만의 복지사업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 가고 싶은 신안'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통합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복지 안전망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서류 등록 및 복지 법인 설립 신고를 거친 후 2024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김영진/기자



# 보성군, 3월부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어플 '빼기' 시스템 시작

## 집에서 1분 만에 터치 한 번으로 이뤄지는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

보성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어플 '빼기' 시스템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뒤 폐기물에 부착해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오는 3월부터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빼기' 앱 시행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에서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인터넷(PC, 모바일)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 배출 희망자는 '빼기'에 접속해 성명, 연락처, 대형폐기물 정보 등을 입력하고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배출 신고가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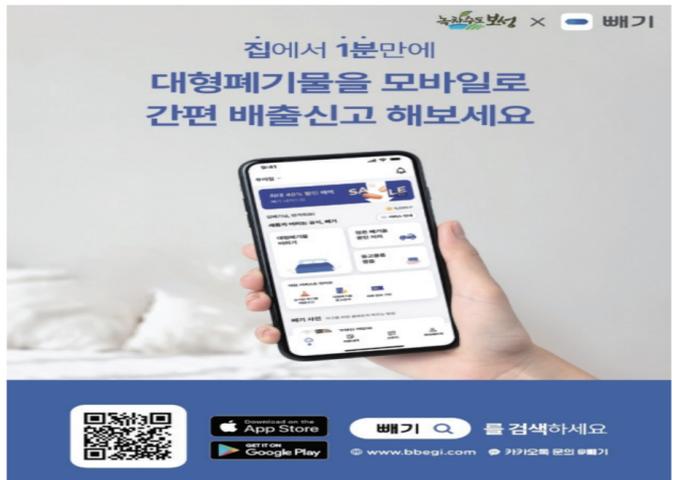
신고 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발급된 신고필증이나 신고 내역을 작성한 종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배출 시간에 맞춰 기존 쓰레기 배출 장소에 배출하면 군에서 수거한다.

단, 실제 배출 품목과 다른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신고한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빼기' 앱에서 대형폐기물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배출 장소까지 운반해 주는 '내려드림'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 편의를 위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원영/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강원형 늘봄학교 인력체계를 우수사례로 소개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관련 종합토론을 주제로 진행

됐으며, 김진태 지사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된 강원형 늘봄학교 퍼블릭 케어 인력 체계를 직접 PPT를 활용해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강원형 늘봄학교 퍼블릭 케어 인력체계는 도, 도교육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23년 12월 27일 맺은 늘봄학교 지원 협약식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라 보조강사,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 정비 등의 추가 업무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도맡아 주시게 된다.

올해 첫 시작은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5개 시군 15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어르신인력은 220명에서 금년내로 600명까지 확대하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해 마련한 사업” 이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1거 5득 효과를 가진 사업”이라며, “어르신은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는 효과, 초·중·고교사는 방과 후 학생지도 부담 최소화, 교육청은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어르신 월급이 지급에 따라 예산 절감, 도는 아이들 봄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산율 확대로 이어질 것” 이라고 소개했고, “타시도에서 이번 우수사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접목하신다면 2024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실 것” 이라고 전했다.

강원형 늘봄학교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발표를 직접들어보니 사업내용이 좋아 전국확산이 기대된다” 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 우리 김진태 지사님이 제일 많이 고민하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국가 정책을 논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 아트밸리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2024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 수상

“다가오는 4월 이순신 축제, 더 완성도 높여 준비할 것”

아산시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29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 베스트 이벤트 프로그램(Best Event Program)에 선정됐다.

'아시아 피너클 어워즈'는 세계 최대 축제단체인 세계축제협회(IFEA) 아시아지부가 아시아 각국 축제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발견해 분야별 시상하는 자리다.

아산시는 아시아 10개국 50개 도시, 60개 축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에서 '베스트 이벤트 프로그램'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지난해 열린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장군의 후예들을 주제로 국방부 전통의장대, 여성 의장대, 육·해·공군 군악대 및 의장대, 해병대 군악대 및 의장대, 특전사 군악대, 미8군 군악대 등 약 700명에 달하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참여해 거리퍼레이드, 입장·폐막 퍼포먼스, 합동공연 및 군별 공연, 프린트 공연을 펼쳤다.

주최 측은 '이순신'이라는 인물 축제 정체성에 집중해 타 축제와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고유 프로그램을 만든 점,

700명이 넘는 최대 규모 군악·의장 페스티벌로 스펙터클한 축제 현장을 연출한 점 등을 주요 선정 이유로 밝혔다.

시상식 참석을 위해 태국 파타야를 방문한 박경규 시장은 “아시아 축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큰 행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축제로 큰 상을 받으니 가슴이 벅차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성웅 이순신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장군의 기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6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축제를 '이순신' 하나만 남기고 모두 바꾸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축제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는 큰 뜻에 공감해 주신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축제 성공을 위해 함께 고생한 모든 아산시 공직자와 아산문화재단 전 직원, 무엇보다도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협조해 주신 전 군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다가오는 4월 열리는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제2회 군악·의장 페스티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더 완성도 높은 축제,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경기상승세 불러올 마중물 만들 것”

김 지사 “일시적 회복 방침 안 돼, 더 공격적인 정책 펼쳐 나갈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수출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확보,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정책이 경기상승세를 불러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현재 경기는 생산과 수출의 증가로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일시적 회복에 방심하지 말고, 더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2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기업의 시설구축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해외사무소를 늘려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구인난은 인력수급을 위한 맞춤형 전략으로 빈자리 1만여 개에 공급할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금융불안과 대외환경의 위험성 등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하고,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망기업 발굴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교류지역 실리외교 및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전문

무역가 양성,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에서 국가별 차별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실리외교를 펼치고, 세계 최대 경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사무소 구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1160개사를 지원한 해외마케팅 지원은 올해 2300여 개사로 확대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도 지난해 65개사에서 150개사로 늘린다.

전문무역가 양성은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무역전문가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충남형 수출 모델 마련으로 농수산물의 수출판로도 다각화한다.

도는 이를 통해 수출 1000억 달러 재달성 및 무역수지 1위를 탈환한다는 방침이다.

빈자리 1만 156개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해 채우되, 이들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근로·정주환경 등을 개선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 체류 인력은 도 추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지역특화형비자(F-2-R) 사업 확대,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 확보, 동포비자(F-4) 외국인 취업활동 지원을 통해 확보할 계획

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형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유학생 아르바이트 연계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 임병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충남 경제 상황 보고를 통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및 신수 수출시장에 대한 맞춤형 전략과 중소기업 중심 수출 품목 확대 노력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는 산업·직능·지역별 수요 파악과 지원체계 구축·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실국별 보고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17개 사업을, 농림축산국은 농식품 수출 진흥을 위한 3개 부문 8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해양수산국은 수출국 다변화와 해외시장개척을 중심으로 2개 분야 5개 사업, 산업경제실은 외국인 근로자 확보 관련 3개 전략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외 18조원 투자 유치와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는 더 큰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에 절실히 필요한 적체적소의 정

책과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회의는 김 지사를 비롯해 경제유관기관·단체, 수출기업,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경제상황과 수출 동향 및 외국인 근로자 점검결과, 실국별 보고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정근/기자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국가보훈부 공모사업 '2024년 보훈 테마활동' 최종 선정

북부녹색어머니회 청소년 자녀 14명 대상

태백시청소년수련관은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보훈 테마활동(보훈해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나라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태백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나라사랑 보훈 He's'she's tory' 라는 주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해당 주제로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총 20명의 청소년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 전국에 있는 현충 시설들을 직접 탐방하여 역사를 알아갈 예정이다.

안현진 관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근/기자

# 충북 미래인재 양성 원년의 해로 도약!

충북 PRIDE 공유대학 오리엔테이션 개최,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3대 핵심산업 미래인재 양성 다각화



충북도의 3대 핵심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 PRIDE 공유대학이 29일 충북대학교에서 참여학생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공유대학 우수학생 시상식과 새롭게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열린 분위기 속에 진행 됐다.

충북 PRIDE 공유대학은 도내 17개 대학 및 도내 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으로, 각 분야별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취업 연계성을 높여 운영할 계획이며 3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15개 대학에서 성황리에 운영됐던 바이오 분야에 더해 올해부터는 반도체·이차전지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고,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소자(교통대), 반도체프로그래밍(건국대) 등 10개 과목, 배터리분야는 이차전지공학1(교통대) 등 4개 과목이 개설되어 1학기에 운영되고, 여름 계절학기 시작되는 7월부터는 산업 현장 중심의 실습 집중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공유대학 운영기관인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와 함께 지난 12월 13일에 도내 17개 대학과 공유대학 활

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바이오 분야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했다.

협약 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학생선발을 추진했고,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들이 보유한 기반시설,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는 충북 PRIDE 공유대학을 운영해 충북의 3대 핵심산업(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산업 환경은 각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충북 PRIDE 공유대학이 미래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첨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튼튼한 담장 안전한 영등포... 영등포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 보조금 지원

## 담장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 및 석축 개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

영등포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단, 건축물 1개소당 담장·옹벽·석축 중 1개의 시설물만 신청 가능하며, ▲사유지 간 시설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올해 옹벽과 석축으로 확대하여 신청의 폭을 넓히고 구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백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 소재)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선정은 건축물의 노후도, 시설물의 위험 및 시급성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관악구가 이렇게 살기 좋았나?" 관악구, 서남권 대개조 구상과 함께 미래첨단도시로 발돋움 하다!

## 첨단산업 중심'산업혁신', 직주근접 실현'주거혁신'에'녹색매력'까지 더해 획기적 변화

서울 서남권이 직(職), 주(住), 락(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로의 혁신을 시작한다. 이로써 관악구에도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일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대개조의 신호탄으로 서남권 개발을 위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남권의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도시혁신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남권은 1960~70년대 소비, 제조산업 중심지로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 성장을 주도했던 지역으로, 수도권 공장 이전 정책 등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장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낙후되어 왔다.

하지만 서남권 지역은 가용 부지가 많고 인근 신도시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확보한 강점이 있다. 또한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와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공간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전환한다. 노후주거지를 여가와 문화를 포함한 녹색감성이 결합된 직·주·락 주거환경으로 조성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번 서남권 대개조 주요 발표 내용은 산업혁신, 주거공간 혁신, 녹색매력을 위한 '신경제·신생활 중심도시'다. '산업혁신'은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접점에 위치한 대규모 저이용부지를 서울의 관문거점이자 수도권 서남부의 동반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

이에 관악구도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악S밸리' 벤처창업거점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강남 테헤란로와 구로G밸리를 잇는 '신스타트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낙성대 일대에 인공지능(AI) 거점 연구단지과 창업지원시설 등 산·학·연 벤처창업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후 2025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거혁신'은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풍요로운 생활환경 완성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 400%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주택정비를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이끈다.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

는다. 주민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 '현장지원단'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현재 총 58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모아타운 사업지는 4개소로 전면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역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시행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녹색매력'은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과 초목길을 확대해 녹색감성도시를 조성한다.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공간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관악구는 '별빛내린천(도림천)·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수변공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별빛내린천을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봉천천을 대상으로 수변공간 활성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네트워크 구축으로 관악 녹지커뮤니티 특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악 그린네트워크, 보행 녹지축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서남권 대개조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우리구의 역할 사업 추진이 강한 추진력을 얻게됐다"라며 "경제, 교통, 주거, 생활환경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획기적으로 변화해 나갈 관악의 미래를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성원/기자



# "송파구 예비군 선배님들, 훈련장까지 편안한 수송 책임지겠습니다!"

## 서강석 구청장 "원거리 이동 없이 불편 최소화, 군·관 협력 지역안보태세 확립"

송파구가 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인 '서초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강동송파'에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하차 장소부터 훈련장까지 2개의 언덕을 넘어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동 불편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관내 예비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수송버스 탑승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 14일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약 140백 만 원의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송파구 예비군 수송버스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기간 47일 동안 1일 9대(45인승)씩 총 423대의 수송버스를 운행한다.

운행 노선은 예비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응답률이 많았던 관내 지하철 환승역 3곳을 거점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예비군대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했다.

관내 예비군은 올해 첫 예비군 훈련 일인 3월 4일부터 ▲송파구청 일자리센터 앞 ▲삼전동 구민회관 앞 ▲장지역 4번 출구 앞 총 3개소 정류장에서 탑승 가능하며, 훈련 후 편안한 귀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 중인 예비군 1~6년차 17,897명이다. 신청은 예비군 훈련 통지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혹은 구글폼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 정류장 위치, 탑승 시각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관내 예비군 수송버스 운영을 통해 송파 청년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 훈련장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관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 성동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실시

##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간 지원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년~2026년)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34세(2024년 기준 1989년~2005년)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

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재산 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 원),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

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물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빛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얼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맛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심

한국의 서가정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벽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박물관, 반달별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보전사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생물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아리수도 백년지대계... 서울시, 노후 정수시설 개선해 365일 안정적 수돗물 공급

## 광암·암사·구의·영등포 4개 노후정수센터 현대화, 순환정비체계 본격 구축

서울시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제2정수장 신설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정비 및 현대화를 위한 순환정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순환정비체계 구축은 기존 정수센터의 재정비 중에도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순환정비체계가 마련되면, 6개 정수센터 중 1980~9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광암정수장, 암사1정수장, 구의1정수장, 영등포1정수장 4개 정수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암사1정수장을 시작으로 2032년부터 2038년까지 구의1정수장, 2037년부터 2043년까지 영등포1정수장의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광암아리수정수센터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증설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95만 m<sup>3</sup>/일에서 25만 m<sup>3</sup>/일 늘린 120만 m<sup>3</sup>/일로 증설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2월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25만 m<sup>3</sup>/일에서 10만 m<sup>3</sup>/일 늘린 35만 m<sup>3</sup>/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암사1정수장의 재정비 기간 동안 신설된 강북2정수장에서 용수 공급을 받기 위한 '강북~암사 정수장의 비상 연계송수관로' 공사도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강남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중심으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강북~암사정수장 연계송수관로'는 노후 암사정수장 재건설 시 대체 급수지원과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해 강북정수센터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간 비상 연계 관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름철 서울시 정수센터 가동률은 87.1%로 일 331만 톤에 달한다.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415만 톤까지 확충해 보다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수센터는 하루 380만 톤



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 용량을 415만 톤으로 증설하면 정수센터 가동률을 79.8%까지 낮출 수 있다.

환경부는 정수센터 적정 가동률을 설계 기준 75%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아리수 생산량 증설은 서울 인접 도시인 남양주 왕숙, 왕숙2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등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 예상 수요량 대비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보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등 인접 도시로도 공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강북2정수장 증설 공사를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재정비 중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순환정비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기후환경 변화에도 견고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비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실시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8일 원내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비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2024년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서비스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해, 제공기관 등록 절차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근로계층·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지체 및 뇌병변 등 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층·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월 4회 제공받을 수 있다.

세종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용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 강원도, 2024년 제1회반도체 투자유치자문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로 강원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투자유치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림대학교 문규 명예교수 등 자문위원과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금년도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계획과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4년 투자유치 계획은 반도체산업 동향, 전문가, 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 금년도 3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기업에 따른 맞춤형 투자유치 계획 등을 담았다.

신규과제는 '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강원권에 구축된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하여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과 의료 반도체센서를 개발하는 사업(안)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투자유치 인력 및 정책의 전문성·연속성·지속성 확보와 특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고, 신규 과제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업의 당위성·차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유치 계획 및 기획과제를 내실 있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강원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부산시,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 개최

## 2. 29. 10:00 부산환경공단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 개최



부산시는 오늘(29일) 오전 10시 부산환경공단 소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정 당면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 시장 주재로 민·관·산·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자원순환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를 발표하고, 민·관·산·학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가연성 폐기물 적재입 급지가 2030년에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매립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쓰레기를 '처분'의 개념에서 나아가 '자원'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량 자원화, 재활용 자원화 산업화 육성을 통해 10개사 이상의 기업 유치와 1천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과 강홍윤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상욱 부원장,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안병용 본부장, 그리고 지역의 폐기물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의 '순환경제 산업 동향과 향후 과제' 기조발표, 시의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발표, 참석자 의견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으로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7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를 위해 소각시설 폐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을 제고하고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해 소각열과 에너지 생산을 증대한다.

①(소각시설 폐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을 제고) 분리수거 및 선별체계를 강화해 가연성 폐기물을 확보하고 고품질 폐기물연료(SRF) 회수율을 높인다.

②(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고효율 에너지 회수시설인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신규 조성해 부산의 자원순환 랜드마크 조성 및 연료화시설 잔재물 등을 추가 소각해 에너지 회수와 매립장 수명 연장에 이바지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를 위해 폐기물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감량기(이하 RFID 감량기) 설치 확대, 공공처리 100퍼센트(%) 달성 및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를 추진한다.

③(RFID 감량기 설치 확대) RFID 감량기를 2030년까지 820대 설치(2023년 기준 87대 보급)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고, 잔재물 전량을 퇴비화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악취 제로 고품질 퇴비생산을 지원한다.

④(100% 공공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 건립하고 개보수 등을 통해 기존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공공 처리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전

기 생산·판매수입 증가, 시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재활용 선별체계 고도화, 재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순환경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⑤(공공 재활용 선별체계 고도화) 구·군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고,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해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 재생원료 생산업체를 육성한다.

⑥(재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실증과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⑦(순환경제 산업단지 조성) 순환경제 산업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의 '폐기물의 자원 회수와 산업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자원순환복합타운 조성 및 연계한 수소가스 생산, 플라즈마 방식의 폐자원 발전시설 검토,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선별 고도 기술 개발, 커피박 체계적 수거 및 이를 통한 고품질 퇴비 생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부산은 폐기물의 자원회수와 산업화를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먼저, 순환경제로 나아가길 것이며, 이를 통해 부산이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도시, 자원 재활용 메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

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걸어서 한강 건넌다... 잠수교, 한강 최초 문화·여가 공존하는 보행교된다

## 29일부터 기획디자인공모에서 선정된 5개팀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 참여

2026년에는 한강을 두뼘뼘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잠수교를 한강 최초의 차없는 보행전용 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29일부터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시민의 삶을 바꿀 매력적인 잠수교 만들기 공모에 나선다.

2026년 상반기까지 한강다리를 시민과 문화, 여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국제적인 수변감성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잠수교는 한강 교량 중 길이가 가장 짧고 한강 수면과 가까우며, 도로보다 다리로 진입하기 쉬워 보행교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다.

이번 설계 공모에서는 지난해 9월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디자인 국제 공모' 참가작 99개 팀 중 심사를 통해 당선된 ▲박종대(내러티브스튜디오) ▲양성구(에테르쉽) ▲박혜주(디자이너스페이스) ▲크리스토프 보글(청보글) ▲닝주 왕(아크 미스트) 5개 팀이 참여해 실시설계권을 두고 경쟁에 나선다.

최종 당선자는 5월 발표 예정이며,

최종 선정작을 대상으로 잠수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디자인 공모'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혁신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이다.

전문가로부터 아이디어와 그에 따른 공사비, 공법 등을 제안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구조다. 이후 기획디자인 공모 입상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게 되는 것.

◆ 창의적·서울매력 극대화 디자인·설계와 365일 시민제감 콘텐츠·프로그램 전략 제안

이번 설계 공모의 핵심은 창의적이면서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한 디자인·설계와 보행교로 전면 전환되는 잠수교 목적과 환경에 맞는 365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전략 제안이다.

또 잠수교 중심 보행네트워크 완성은 물론,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PM) 이용자와 보행자들

간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

운영방안과 콘텐츠 및 공간·시설계획은 단기·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단기사업은 '26년 4월내 준공을 완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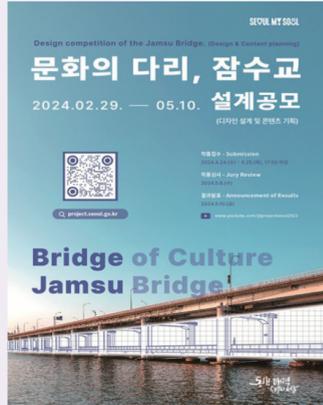
한편 서울시는 한강 수변 명소가 될 잠수교 설계공모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창훈 건축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김재경 교수(한양대학교) ▲박희찬 대표(스튜디오 히치) ▲양수인 대표(살것건축사사무소) ▲조항만 교수(서울대학교) ▲최윤희 대표(바래건축사사무소) ▲송수진 교수(고려대학교) ▲최도인 본부장(메타기획컨설팅)이 맡았다.

시민들에게 잠수교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5월부터 개최 예정인 '차없는 잠수교 두뼘뼘 축제'에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VR) 전시 공간'을 마련해 문화의 다리, 잠수교를 체험할 수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잠수교는 시민들이 한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강 최초의 보행교이자 문화의 다리인 잠수교가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모습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창원시, 부림창작공예촌 부림원도우 갤러리 3월 개인전 전시

창원특례시는 3월부터 마산합포구 부림시장 안에 있는 부림창작공예촌에서 부림원도우갤러리 입주예술인 개인전을 전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림창작공예촌은 2013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재래시장인 부림시장 내 빈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됐으며, 부림원도우갤러리는 일반적인 넓은 전시장이 아닌 부림창작공예촌 안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부림시장 내부를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부림원도우 갤러리는 2024년 첫 전시로 영영희 부림창작공예촌 입주작가의 개인전 '해양의 조화'를 3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전시하며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박성란·서민정 부림창작공예촌 입주작가 2인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영순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창원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부림시장에서도 시민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부림원도우 갤러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군산시,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 수상

## 29일 태국에서 열린 '축제계의 아카데미 상' 피너클 어워드

군산시는 29일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됐던 2024년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해설사 프로그램'이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 축제협회(IFEA World)가 축제이벤트 분야에 수여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매년 전 세계의 경쟁력 있는 축제 교육, 콘텐츠, 상품 등 각 부문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수상한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해설사 프로그램'은 군산시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문화재 해설사가 되어 아이들의 시각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기간에는 (구)군산세관 본관 등 5개 문화재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직접 문화재를 해설,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해설사 프로그램'은 올해 10월경 미국 맥알렌에서 열리는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세계 여러 축제 프로그램들과 경쟁하게 된다.

김현석 문화예술과장은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해설사 프로그램이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까지 진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올해는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을 더

욱 확대 운영하여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문화재야행은 한여름 밤 군산 문화재 밀집 구간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향유하는 야간형 행사이다.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인기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2024년 군산문화재야행은 8월 16~17일, 8월 23~24일 2회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태/기자



# 광양시,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 제23회 광양매화축제, 제7회 광양천년동백축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광양시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들어 첫 '광양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의 안건은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광양매화축제'(3월 8일부터 17일까지) ▲옥룡면 동백숲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7회 광양천년동백축제'(3월 23일부터 24일까지)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기홍 부시장 주재로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등 분야별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검토 사항 설명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축제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사고별 예방 대책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교통 대책 등 안전관리계획을 자세히 검토했다.

특히,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및 주차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실무위원회에서 나온 보완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축제 개최 전날 경찰, 소방, 전기,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그동안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선제적인 예방 활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인 축제, 폭죽이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축제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시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선거구 획정지연에 전남 일부지역 '깜깜이 선거'해당 지역구 후보·유권자 모두 '혼란'

4·10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2월 28일 전남지역 선거판 윤곽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낀 도로 마냥 뿌연다. 아직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텃밭인 민주당의 경선 후보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유권자와 후보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선관위의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들여다보면 전남지역 선거구는 의석수 10개는 변함이 없지만, 동부권이 4석에서 5석으로 1석이 늘고, 중 서부권은 6석에서 5석으로 1석이 줄어든 안이다.

영암·무안·신안이 해체돼 인근 지역

구로 묶이고 순천이 분리돼 갑과 을로 나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21일을 넘겨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합의안 도출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다음 달 6일을 넘길 경우 2004년 17대 총선에서 기록한 D-38일 기록을 깨게 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D-39일에 가까스로 확정돼 깜깜이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

여기에 전남 입장에선 텃밭인 민주당 경선 후보들 윤곽이 늦어지면서 후

보자 간 비방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의 8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 따라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2인이 경선을 치르고 목포시는 김원이 의원·배중호(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초년생인 예비후보는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이번처럼 선거구 개편이 예고된 지역구(무안·영암·신안) 선관위의 획정 안처럼 지역구가 해체되면 해당 후보자들은 인근 목포시나 해남·진도·완도 또는 나주·화순에 유·불리를 따져

출마지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지역구의 후보나 유권자 모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지역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총선 전 최소 6개월 안에 조기 확정하도록 강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향후 선거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처럼 텃밭인 특정 지역의 경선이 곧 본선이나 마찬가지로인 경우, 후보를 가능하면 조기에 확정해 유권자에게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박종배/기자

### 정인화 광양시장, 현장속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지속

매화축제 막바지 준비상황 점검, 월길지구 보강개발사업 지표수 확보방안 검토

정인화 광양시장은 28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간·소통행정인 '2월 중 제2차 현장소통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제23회 매화축제 준비 현장, 진월면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현장 등 2개소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축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3회 광양매화축제 현장을 찾아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곳곳을 돌며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점검에 앞서 2차례 현장점검을 했으며, 지난 23일에는 부시장 주재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역할과 준비상황을 재점검했다.

이날 정 시장은 둔치주차장에서부터 주 행사장까지 관광객의 주 이동 동선을 따라 대형·소형 주차장, 셔틀버스 회차지, 화장실·세족장 등 편의시설, 심진강 맨발 걷기길 등을 확인하며 미비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정 시장은 비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둔치주차장의 조성이 어려워지자 주변 유희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둔치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완비, 광양무인항공교육원의 펜스 철거를 통한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진입로 단차 평탄화 등 차없는 거리를 대비해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를 모색하고 매화랑 1박 2일, 매실 하이볼 체험, 웃소매 매화 끝동, 심진강 맨발 체험 등 이색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차별화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내달 5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번 축제에 제기된 미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빈틈없는 행정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진월면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저류지 규모 및 현장 여건을 자세히 살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양수장, 저수조)의 개발 및 보강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월면 월길리 중도와 가길 지역은 무분별한 관정 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되고 염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진월면 월길지구 일대에 수원공(양수장 3개소, 저수조 1개소)과 용수관로(송수관 L=3.5km, 용수관 L=10.9km)를 설치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중도지역의 경우 사업 준공 후 발생하는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수리계의 의견을 취합해 사업을 추진하고, 가길 저류지의 여수로(餘水路) 개설 시 농경지까지의 최단거리를 고려한 최적경로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처럼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에 시장의 모든 초점을 맞춰 발로 뛰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 민생 의견수렴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승준/기자

### 국제안전도시 광명,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 공유하고 의견 수렴

#### 29일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대비 보고회' 개최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선포한 광명시가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2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대비 보고회'를 개최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광명시는 지난 2018년 10월 55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선포 후 '광명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연차별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

의 거버넌스 구성, 시민단체와의 협업 등 공인을 위해 노력해 온 끝에 2023년 10월 본 심사를 통과해 세계 438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승원 시장과 시민, 공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경과보고에 이어 광명시 2기 국제안전도시 5개년 추진 방향과 국제안전도시 사업 5개 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토론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도시, 올해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며 "앞으로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의 모범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회를 진행한 박남수 협세대 교수는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1기 국제안전도시 사업 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 분과 운영 활성화 등 향후 5년간 2기 국제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제안전도시 사업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향후 5년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재심사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으로, 안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양한 안전 사업추진과 모니터링, 지속적인 거버넌스 운영,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과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동일/기자

### 나주시, 중대재해예방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출연기관 및 현업근로자 관리 담당자 등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조치로, 법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중점

#### 법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등 중점 안내

적으로 다뤘다.

나주시는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유민 교육센터장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밀폐공간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실제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예방법 등을 안내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중대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중대재해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순회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 상 규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영화 '소풍', 제4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2024 스프링 쇼케이스 초청!

입소문 흥행 순항을 이어가는 영화 '소풍'이 제4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 2024 스프링 쇼케이스에 초청됐다. 국내 관객들을 사로잡은 데 이어 국제영화제 초청으로 해외 관객들과 만나게 됐다.

영화 '소풍'이 초청된 하와이 국제영화제는 북미를 대표하는 영화제 중 하나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작품들을 선정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영화제이다.

가을에 진행되는 본 영화제에 앞서 오는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열리는 2024 스프링 쇼케이스(2024 Spring Showcase)는 아시아, 태평양, 북미를 아우르는 20여편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2023년에는 '올빼미', '교섭' 등의 한국영화가 상영된 바 있다. '소풍'의 하와이 국제영화제 스프링 쇼케이스 상영은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Consolidated Theaters Kahala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와이 국제영화제 프로그램 디렉터

'Anna Page'는 '소풍'에 대해 "우정, 가족 그리고 존엄사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로 세대를 아울러 깊은 울림을 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작품을 소개하며, "모든 나이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화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 시간인 두 친구가 60년 만에 함께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노년층 관객에게는 자신의 이야기, 젊은 세대에게는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와 가족, 친구와의 우정, 웰다잉과 존엄사 등 노년의 삶을 현실적으로 다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두 주인공들의 케미와 과감한 선택의 자유를 찾아 떠난 두 여인의 로드 무비이자 여성 우정영화의 대명사, 영화사 걸작으로 손꼽히는 '델마와 루이스'를 떠올리게 만들어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

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세대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입소문에 힘입은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소풍'은 전국 극장가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최만식/기자



'닥터슬럼프' 박신혜X박형식, 수술실 비하인드 컷 공개

'닥터슬럼프' 박신혜, 박형식의 힐링 로코가 제대로 통했다.

JTBC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연출 오현종, 극본 백선우, 제작 SLL-하이디움스튜디오) 측은 28일, 안벽 그 이상의 연기와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박신혜와 박형식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인생도 사랑도 심폐 소생에 나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유쾌한 웃음과 설렘,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매회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하늘(박신혜 분)과 여정우(박형식 분)는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혀 헤어졌지만, 이내 다시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입맞춤으로 두 번째 로맨스의 막을 열었다. 무엇보다 슬럼프와 번아웃으로 가운을 벗었던 이들은 의사로서 재기하는 모습으로 몽글몽글 울림을 안겼다.

이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10회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9.8%(닐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유료가구)를 돌파, 종편 및 케이블 전체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TV(비영어) 부문에서는 200만 시청수(누적 시청시간을 타이틀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 1650만 시청 시간으로 6위를 기록하며 5주 연속 10위권에 안착했다. (넷플릭스, 2월 19일~2월 25일 기준)

이같은 뜨거운 호평의 중심에는 '민보배'의 저력을 어김없이 보여준 박신혜와 박형식이 있다. '우를러플' 남하늘, 여정우 그 자체로 분한 이들의 열연은 차원이 다른 공감과 몰입을 부르며 보는 이들을 함께 웃고 울고 또 설레게 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닥터'들, 남하늘과 여정우의 수술실 비하인드를 담고 있다.

먼저 박신혜가 카메라를 향해 무심한 듯 사랑스러운 바이(V) 포즈를 취하며



촬영장 분위기를 환하게 밝힌다. '로코퀸'으로 화려한 복귀를 알린 박신혜는 로맨틱 코미디에 최적화된 연기는 물론, 극 초반부터 감정의 진폭이 큰 남하늘의 캐릭터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진가를 발휘했다.

이어진 사진 속 수술 장면을 준비하는 박형식의 모습도 포착됐다. 악몽 같은 트라우마를 남긴 의료사고 후 다시 수술대에 선 여정우와 동기화된 듯 진지하고 긴장한 표정이 눈길을 끈다.

단 몇 초 몇 컷을 위해 대본을 손에 놓지 않고, 촬영 직전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경청하는 그의 열공 모드에서 작

품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느낄 수 있다.

'닥터슬럼프' 제작진은 "박신혜, 박형식은 흡인력 있는 연기로 각각 캐릭터의 서사와 감정을 탁월하게 풀어내고 있다. 서로를 위로하고 변화하는 '우를러플'의 로맨스도 특별한 힐링 케미스트리로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라며 "회를 거듭할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후반부 전개 역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JTBC 토일드라마 '닥터슬럼프' 11회는 오는 3월 2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4월 3일 개봉 확정! 티저 포스터 전격 공개!



누적 조회수 35억 뷰 인기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의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가 오는 4월 3일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제작: 로커스, 스튜디오N | 배급: CJ CGV(주), 롯데컬처웍스(주)롯데시네마 | 감독: 김다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웹

툰에서 연재된 [유미의 세포들]은 누적 조회수 35억 뷰를 달성한 인기 콘텐츠로 유미의 마음속 세포라는 독특한 설정과 세밀한 심리 묘사, 공감 스토리로 2030 독자층의 큰 사랑을 받았다.

2021년~2022년 방영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역시 김고은, 안보현, 박진영 주연의 로맨스 드라마로 화제를 모으며 성공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처럼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유미의 세포들]이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는 언제나 1순위였던 사랑이와 걱정 많은 불안이의 균열로 혼란에 빠진 유미의 행복을 되찾아 주기 위한 전지적 세포 시점 프로젝트를 그린 작품.

이번 영화는 네이버웹툰의 자회사 스튜디오N과 '레드슈츠' 등으로 K-애니메이션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 로커스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아 탄탄한 작

품성을 기대케 한다.

특히 드라마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을 담당한 김다희 감독이 연출을 맡아 귀여운 3D 세포들의 매력을 제대로 선보일 전망이다.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극장의 객석을 배경으로 모여 앉은 귀여운 세포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팝콘을 먹고 있는 '출출 세포'부터 상기된 얼굴로 메모하는 '작가 세포', 손톱을 물어 뜯는 '불안 세포', 행복한 표정의 '사랑 세포'와 감동받은 '감성 세포'까지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개성을 드러내고 있어 영화 속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선사할 세포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또한 "이번엔 우리가 주인공이래"라는 카피는 스크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관람하는 세포들의 영동하고도 유쾌한 매력을 기대케 한다.

우리들이 사랑한 인기 웹툰의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는 4월 3일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 추자현, 다중적인 감정의 인물 '덕희'로 스크린 복귀! 새로운 연기 변신 예고!

다양한 매력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배우 추자현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는 인물 '덕희'로 분해 스크린을 압도할 예정이다. [감독: 장윤현 | 출연: 추자현, 이무생 | 제작: (주)로그라인스튜디오, (주)스튜디오컬러웨이 | 배급: 트윈플러스파트너스(주)]

'당신이 잠든 사이'는 교통사고로 선택적 기억 상실을 앓게 된 '덕희'로 인해 행복했던 부부에게 불행이 닥치고, 남편 '준석'의 알 수 없는 행적들이 발견되면서 진실을 추적해가는 미스터리 로맨스.

추자현은 드라마 [작은아씨들], [수리남], [그린마더스클럽],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등 장르를 불문하고 섬세한 연기력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었다.

캐릭터마다 완벽하게 흡수되며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추자현이 미스터리 로맨스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남편의 비밀스러운 행적을 추적하는 '덕희'로 분해 강렬한 연기 변신을 예고한다.

미술 강사인 '덕희'는 인기 소설 작가 '준석'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선택적 기억상실을 앓는 불행이 닥치게 되고 한없이 자상했던 남편에게 의심스러운 행적이 발견되면서 이를 추적해가는 인물이다.

추자현은 밝고 사랑스러운 '덕희'의 모습부터 기억 상실로 인해 불안해하는 감정, 비밀을 감춘 듯한 남편 '준석'을 의심하고 이를 추적해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캐릭터 그 자체에 녹아든 열연으로 영화를 이끌어 나간다.

추자현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덕희' 캐릭터는 굉장히 다중적인 감정을 이끌어내야 했기 때문에 인



간의 본능적인 부분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매끄러운 극의 흐름과 '덕희'의 요동치는 감정 사이에서 그 작은 차이를 표현해 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히 몰입도 높은 그의 연기에 대해 궁금증을 높인다.

또한, 연출은 말은 장윤현 감독은 "배우 추자현은 어려운 촬영 환경 속 모든 걸 극복시켜준 배우였다. 촬영 매

순간 보여주는 열정에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다"라고 극찬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접속', '텔 미 씬딩' 장윤현 감독과 배우 추자현, 이무생이 그리는 2024년 가장 짙은 미스터리 로맨스 '당신이 잠든 사이'는 오는 3월 극장 개봉해 관객들과 만난다.

최만식/기자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 제44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경북교육청, 우리 동네 늘봄안내지도 제작·배포

### QR코드로 2024 지역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정보 검색 및 활용 임종식 교육감,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돌봄 정보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틈새 없는 촉촉한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 돌봄 기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4 우리 동네 늘봄안내 지도'를 제작해 도내 468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16,000여 명에게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늘봄안내지도는 방과 후 초등 돌봄 기관의 통합·조정으로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늘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 지도에는 경북 도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 함께 돌봄센터 등)를 제공하는 돌봄 기관의 정보를

QR코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안내지도를 현행화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가정에서는 돌봄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고 자녀의 나이와 상황, 지역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돌봄서비스는 주거지 근처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돌봄

정보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틈새 없는 촉촉한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신학기 학교 안전 합동점검 실시

### 학생 안전(학생통학로), 산업안전(급식실), 시설 안전(공사장) 점검 김태형 부교육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영덕군에 있는 영해초등학교와 청도군에 있는 청도초등학교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태형 부교육감이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도 교육청 관련 부서·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통학로 안전, 급식실(조리실) 안전, 학교 내 공사장 안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신학기 등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보장과 안전한 급식 제공에 대해 개학

전 철저한 준비를 학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 학교와 공사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준공기일 준수, 공사장 주위 안전 등을 주문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단순 조치 사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하고,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학교지원청, 지자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결할 방침이다.

김태형 부교육감은 "신학기 개학을 앞



두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행복하고 따뜻한 구미교육을 위한 첫걸음!' 신규 교감 선생님 그리고 신규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 구미교육지원청, 지난 1일, 신규교감 및 교사 임명장 수여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7일(화), 4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1일자 유·초·중등 신규 교(감)원 19명, 신규교사 31명, 총 50명을 대상으로 임

명장 수여식을 하였다.

임명장 수여식은 임명장 수여, 희망화분 증정, 신규교사 선서식, 기념 촬영, 교육장 환영사, 구미교육 소개,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신규교감 및 교사의 릴레이 첫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이날 참석한 신규교사는 "구미에서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서 행복하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육장님과 동료 선생님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나니 강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느껴진다. 항상 처음처럼 연구하고 성찰하는 교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교육장은 50명의 신규교감

및 교사 한 명씩 임명장과 희망화분을 증정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구미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의 에너지와 노력으로 더욱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다. 오늘 발령받은 신규교사는 교육 희망 화분을 키워나가며 아이들의 꿈을 믿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또한 신규교감 및 교사가 학교 현장에 적응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교육계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동현/기자

# 성주교육지원청, 유보통합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 지난 29일, 유보통합 추진 위한 지방업무 이관 협의회(1차) 개최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9일(목), 성주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업무 이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성주 유보통합추진 협의회는 김진화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을 단장으로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과장, 여성보육팀장, 행정팀장, 예산팀장, 성주교육지원청 장학사, 행정지원담당, 재정지원담당, 건강증진담당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협의회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경북도청과 유보통합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방업무 이관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 돌봄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



해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채종원 교육장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제정, 관리체계, 교사 자격 등이 달라서 나타나는 교육이나 돌봄의 환경 차이의 발생을 줄여서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성주군도 오늘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학생들의 잠재된 영재성을 조기 발굴하고 육성한다.

### 2024학년도 봉화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연수 실시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8일(수), 봉화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영재강사 24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봉화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강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4학년도 봉화영재교육원은 지난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 43명을 대상으로 초등수학, 초등과학발명, 초등정보, 중등융합 등 4개 영역학급으로 편성되어 연간 120시간의 영재교육이 실시된다. 수업장소는 관내 발명교육센터, 내성초등학교, 봉화중학교에서 영역학급별로 나누어져 진행된다. 수업방법은 출석수업과 과제

형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영재교육의 목표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굴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신장시키는 것이다.

오늘 연수는 1년 동안 영재수업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영재수업 중 학생 관찰 평가 내용을 GED 영재성발달기록부에 기록하는 연수도 함께 실시하였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권해자는 '봉화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

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를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 경상남도교육청,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운영 본격화

### 학생·시민을 위한 체험 중심 독도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 기대



경상남도교육청은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독도 체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독도체험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메타버스 독도 체험관을 구축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ZEP에 기반한 가상현실 독도 체험 시스템으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독도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독도에 가지 않고도 독도를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25일 '독도의 날' 계기로 독도 교육 주관을 운영할 때 교사들이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독도 교육을 진행하여 메타버스 독도체험관을 성공적으로 시험 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재배정하여 동시 접속 인원 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늦어도 오는 10월 독도 교육 주간 중에는 현장 교사들이 독도 체험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메타버스 독도체험관 주요 체험 콘텐츠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3차원 체험) △독도는 지금(실시간 영상) △숫자로 보는 우리 땅 독도(독도의 지형도), 독도 360° 가상현실 체험 △독도 어류도감 △독도신문 만들기 △독도 강치 이야기 △독도 디지털 실감 영상관(독도 다녀오겠습니다.) △독

도의 역사와 사람을 △독도의 생물과 자원 △독도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 △독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등이다.

한편, 독도 체험관 메타버스 접속 방법은 2가지로 외부 연결 주소(https://zep.us/play/8Gp5OQ) 또는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 누리집의 '메타버스'배너를 누르면 된다. 이 밖에도 기존처럼 진주에 있는 과학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과학관 4층에서 독도체험관을 체험할 수도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독도 체험관 메타버스가 체험 중심의 독도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학교 교육을 통한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위촉과 전문성 강화

###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및 역량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수), 안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규 심의위원 위촉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전문직, 교원,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 법조인, 학부모를 비롯해 40여명으로 구성되었고 신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폭력의 이해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법의 이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실제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순호 교육장은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회 개최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8일, 포항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는 새롭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위원회 절차 ▲심의 절차에 따른 모의 심의 ▲사례별로 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0명의 위원을 8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위촉된 심의위원은 오는 지난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내 각급학



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천종복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

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DO THE Goe • 1분 전

### [파세요] 정책 대량구매 합니다

e정책장터에서 좋은 정책 파세요 🌱

- ✓ 대상: 경기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 시기: 언제나(상시)
  - ✓ 내용: 교육정책 아이디어와 개선안 등
- 채택되면 금상, 은상, 동상(상금과 표창) 글 내리기 전까지 계속 구해요~



조회 2490055

[e정책장터 바로가기](#)

[www.epolicymarket.goe.go.kr](http://www.epolicymarket.goe.go.kr)